

2015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부평구문화재단

보다
BO DA

BO DA 2015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01

부평구문화재단

보
다
BO DA

Vol. 01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우리동네 금요일〉 무대에서
벤저민 브리튼의 '심플심포니'를 연주하는
부평챔버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전하나

보다 창간호

발행인	발행처
박옥진	(재)부평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십정동) 403-843
편집인	전화
강영구	032-500-2032
편집기획	팩스
정영진, 이해진	032-500-2060
편집디자인	홈페이지
B2	www.bpcf.or.kr

발행일
2015년 8월 20일

BODA | 보다

[동사]

1.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2. 눈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다.



'보다'는 국내외 문화와 예술을 바라보고, 만나보는 소식지이자,
부평구민이 함께 즐기고 감상하는 문화지입니다.

CONTENTS

시선

Man from Art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을 이야기하다	04
Art & People	후원회 확산은 지역문화 지지의 척도	12

보다

Art Scene	문화예술도시 부평을 디자인하다	17
------------------	------------------	-----------

생각

Look Inside	보존에서 융성으로 변화하는 지역문화정책 패러다임	19
Look Around	밤을 늦추는 한낮의 음악축제, 프랑스 음악축제	22

인사이드 부평

Zoom In-01	예술로 놀자, 부키프!	26
Zoom In-02	Shall we dance? 가족과 함께 땀땀댄스	30
Viewfinder-01	15주의 기적,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화음	32
Viewfinder-02	맙큐! 우리동네 금요마실!	36
Review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창립 外	39

미리보다

What's next-01	대학로 창작뮤지컬의 흥행신화, 여신님이 보고 계셔	42
What's next-02	이웃과 나누는 예술의 감동,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44
What's next-03	2015 야외 축제 부평 밴드페스티벌	45
Calendar	하반기 부평문화재단 프로그램 일정	46

INFO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안내	54
-----------------------	-----------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을 이야기하다

연출가 권호성 VS. 평론가 임진모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서구음악 국산화의 역사라고 한다면, 미군들을 위한 음악을 하면서 우리 식의 발라드와 록을 가공해낸 터전인 ‘에스컴(ASCOM/미 군수지원 사령부) 시티’ 부평은 한국 대중음악의 초석을 다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가요의 시작점이자 성장 거점이 되는 셈이다. 2014년 11월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초연된 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그래서 부평 사람들에게 특별하다.

전문 임진모 | 정리 편집부 | 사진 전석병 | 장소 박캠프

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지금은 기억하는 이가 많지 않은 오래전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음악도시’이자 ‘문화도시’ 부평을 소환해낸다. 1950~70년대에 걸쳐 부평 ‘에스컴 시티’ 영내와 영외에서 성공의 꿈을 키우고 고통을 겪으면서 미래로 뻗어 간 민초 음악인들의 이야기다. 권호성 연출가는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을 부평이라는 지역성과 음악인들의 보편적인 스토리를 잘 결합해 감동적인 음악극으로 꾸려 내는데 성공했다.

연말 해누리극장에 오를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의 공연 준비에 한창인 그는, 부평을 ‘대중음악의 역사적 사료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임진모 음악평론가에게 부평과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의 운명적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음악극 콘텐츠 선택이 탁월했다면서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을 전국적인, 국제적인 콘텐츠로 키워가고 싶다는 비전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작품에 지역성과 음악적인 요소를 더욱 강화해 당시 부평의 음악이나 주민들의 삶, 신촌과 삼릉, 백마장 등을 배경으로 지역색을 더 생생하게 살릴 생각이라고 한다. 인터뷰 중 권호성 연출가는 “이 작업은 사명”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거듭했다.



임진모

<경향신문>, <내외경제신문> 기자 출신 대중음악평론가로 1991년부터 평론활동을 해오고 있다.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 등 다양한 매체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팝 경제를 노래하다>, <가수를 말하다>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권호성

대한민국 연극 연출가로 ‘쇼엔라이프’ 대표다. 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춘향>, <날아라 박씨>, <윤동주 달을 쏘다> 등을 연출했고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1, 2>, <숙영낭자전을 읽다>, <몽연>, <가시고기>, <황야의 물고기> 등을 연출했다.



2014년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공연 장면



2014년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공연 장면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시발점을 추억하는 음악극

임진모(이하 임) |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음악도시’ 부평을 추억하고 ‘문화도시’ 부평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공연이다. 문화재단이 음악극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연출가로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는 감이 바로 왔나?

권호성(이하 권) | 부평이 음악극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대중을 선택했다는 뜻이라고 이해했다. 그래서 연극이나 음악 마니아가 아닌, 불특정 다수가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임 | ‘음악도시’ 부평을 알린다는 주제와 연출가로서의 욕심이 충돌한 적은 없었나?

권 | 충돌이라기보다 ‘부평적인’ 느낌을 극에 어떻게 살릴까가 고민이었다. ‘부평적인 느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무척 고민했다. 이곳 주민들은 알고 내가 모르는 게 뭘까. 연출을 맡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지금 남아있는 당시의 흔적을 찾는 일이었다. 하지만 일본 조병창 관련 몇 가지 자료, 미군 계급장, 기념사진 몇 장, 부지깥이 같은 것들뿐이었다. 건질 게 없었다. 여러 어려운 상황을 정리하면서 최선을 다해 만든 결과물이 지난해 공연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는 ‘음악도시’ 부평에 대한 드라마의 첫 단추를 겨우 끼웠다고 할 수 있다.

임 |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에 나오는 음악인의 애환이란 것은 사실 보편적인 주제다. 특히 1950~70년대에 집안에서 완벽하게 허락을 받고 지원을 받으며 풍족하게 음악을 한 사람이 있었을까?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에는 부평이라는 로컬적인 면이 더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쟁 이후 부평에 주둔한 미군들은 자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내에서 음악을 했다. 영외의 많은 클럽에서도 재즈와 로큰롤, 스탠더드 팝 등 다양한 음악을 즐겼다. 전국에 있는 여느 ‘에스캄 시티’ 주둔지역보다 큰 규모의 클럽들이 성업했다. 배호, 한명숙과 같은 가수들, 기타리스트 신중현, 김홍탁, 김청산 등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음악인들이 모두 부평을 거쳤다. 이런 사람들이 트로트 밖에 없었던 우리 음악에 새로운 씨앗을 뿌린 거다. 부평이 ‘한국 대중 음악의 진정한 거점’이라는 수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음악극에 이런 역사적인 요소가 더 들어가 줘야 부평에서 만든 음악극이라는 의미가 빛나지 않을까? 지난해 공연에는 부평이 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겹돌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에스캄 시티’는 동두천에도, 대구에도 있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이 ‘에스캄 시티 음악극’이 아닌 ‘음악도시 부평의 음악극’이 되기 위해서는 ‘부평적인 면’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권 | 충분히 공감한다. 지난해부터 계속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수준 높았던 당시 부평의 음악이나 주민들 삶의 모습이 녹아든 스토리, 삼릉이나 백마장 같은 지명 삽입 등으로 올해는 지역색을 더 생생하게 살리려고 계획 중이다.

부평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것이 관건

권 | 어렸을 때 부천 쪽에 살았다고 들었다. 혹시 부평의 음악적인 분위기에 대해 기억나는 부분은 없나?

임 | 내가 어릴 적엔 부천을 ‘소사’라고 했다. 소사에서 부평까지 네 시간 넘게 기차길을 따라 걸어본 기억도 있는 데, 사실 내 기억 속의 부평에는 음악적인 분위기가 없다. 이미 미군부대 음악의 전성기는



2014년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공연 장면

1970년대 중반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으니까. 클럽 음악이 흥미했던 시대의 산증인들도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 부평 영내에서 음악을 했던 분들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인천밴드연합 정유천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다. 일반적인 ‘에스캄 시티 음악’과 차별점을 가지는 ‘부평만의 음악색’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였다. 그에 따르면 과거 부평 에스캄 시티 영내에는 장교, 하사관, 사병 통틀어 다섯 개의 클럽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 보컬이 없고 글렌 밀러나 베니 굿맨 등 스윙 재즈가 대세였다는 것이다. 이런 면을 반영하면 어떨까? 글렌 밀러의 재즈곡 ‘인더무드’를 삽입해도 좋을 것 같다. 사실 보컬 없이 드라마를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대사 등으로라도 이런 부평만의 특성을 언급해줘야 하지 않을까?

권 | 좋은 의견이다. 올해 공연에 참고하겠다. 사실 지역 콘텐츠라는 것이 단 한 번 공연을 올려 성공하기는 힘들다. 나는 지역 콘텐츠를 많이 연출하는 편이다. 전라북도 브랜드 공연인 음악극 <춘향>을 전주 한옥마을 상설 공연으로 올리고 있고 강원도립극장에서 <허난설헌>을 공연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5·18 기념 음악극 <화려한 휴가>를 연출했다. 지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한 공연의 경우, 참고 기다려주면 몇 년 후에 뭔가 이루어졌고 아니면 아쉽게 사라졌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도 적어도 3년 정도의 마스터플랜 속에 차근차근 극의 완성도를 높이고 보완해가다 보면 멋진 작품이 만들어질 것 같다.

임 |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에서 가족 음악극의 가능성을 봤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즐기는 공연을 위해서 오디션 신을 강화해보면 어떨까? 오디션 신에서는 ‘부기우기보이’, ‘록어라운드클록’ 등 다양한 음악이 나온다. 모두 1950~60년대 유행하던 음악이다. 여기에 10대~20대들도 볼 수 있도록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들의 음악도 삽입해 보면 어떨까? 어린 배우들이 나왔을 때 ‘엑소’의 ‘오르랑’이나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케이크’ 같은 걸 넣는 거다. 그러면 공연장을 찾은 어린 혹은 젊은 관객들과의 공감이 더 커질 것 같다.

권 | 작년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오디션 장에서 시작해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플롯을 짜면서 현대적인 곡들을 넣는 것이다. 주인공

용생을 오디션 장의 심사위원으로 넣을 수도 있고. 하지만 배우의 수도 부족하고 여건이 안 되었다. 올해도 그러한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낼 것이다.

대극장 공연은 음악이 대폭 업그레이드 될 것

임 | 지난해 공연에서 만족스러웠던 점이 있다면? 주변의 평가는 어땠나?

권 | 가능성 있다.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연출가로서는 재미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칭찬이고 재미없었다가 가장 큰 비난이다.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일단 성공했다고 본다.

임 |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은 성공적이라고 본다. 다이애나와 용국의 러브스토리도 애뜻했다. 압권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용생이 기타를 팔러 가는 장면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마치 영화 <라이언킹>에서 심바가 생에 비친 자기 얼굴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발견하는 장면 같은 감동이 밀려왔다.

권 | 음악적인 부분은 아쉬웠다. 번안곡을 쓰는 다른 뮤지컬과는 달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오리지널 곡으로 공연한다. 추억의 골든팝을



2014년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공연 장면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드문 기회이다. 그런 만큼 음악적인 부분에 힘을 주고 싶었는데 소극장에서는 라이브로 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

임 | 음악평론가로서 아쉬웠던 점도 음악적인 소구가 약했다는 것이다.

권 | 올해는 다를 것이다. 소극장 공연과 대극장 공연이 궁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물량이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음악극이니까 그 물량은 음악이다. 대극장에서는 음악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다. 음악이 들리고 보여야 한다. 그것으로 우리는 관객들과 이 시대와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공연에서는 음악에 대한 투자와 연출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라이브 음악이 나와야 한다. 극단적으로 밴드가 안 나오면 대극장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것이 사명

임 | 올해 공연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권 | 상업성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다. 지난해는 이 공연이 음악극으로서의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다면 올해는 얼마나 흥행이 가능한지를 점쳐 볼 것이다.

임 | 배우들의 연기는 어땠다고 보나? 올해 공연에는 어떻게 기용할 생각인가?

권 | 나쁘지 않았다고 본다. 경험이 적은 배우들이 많았는데 열심히 해주었다. 올해 공연을 위해 오디션을 한다면 아마 고생한 지난해 출연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을까 한다.



임 | 고생했다는 면도 있지만, 경험의 축적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연기는 같은 역할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능숙해져야 편안함과 속도가 나오지 않나. 배우 윤석화가 '신의 아그네스'에만 출연하면서 연기를 갈고 닦았던 것처럼. 능숙한 배우의 연기는 송진처럼 '배어 나온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공연에서 '발견'했다고 할 만한 배우가 있을까?

권 | 일단 '다이애나' 역을 맡은 김재은 배우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용국 역의 안도경 배우도 안정적이었다. 역할과 잘 어울렸다. 용국의 여동생 역의 배우도 경험이 별로 없었고, 오디션 때도 겨우 뽑혔는데 기대보다 무척 자연스럽게 연기했다. 주인공 '용생' 역의 조현우 배우는 연기보다는 기타 연습을 많이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기타를 잘 못 치는 친구였는데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 매일 밤 홍대 근처에서 특훈을 했다. 이번 공연은 음악극인만큼 프로뮤지션만큼은 아니더라도 악기를 자기 몸처럼 다루는 배우가 몇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연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기타나 드럼의 사운드를 제대로 내줄 수 있는 뮤지션 캐스팅도 필요하다고 본다.

임 |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가족 음악극으로 발전시킬 만한 가능성도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음악도시로서의 부평의 역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배우들의 연기를 어떻게 농익게 할 것인가 등의 고민을 통해 더욱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권호성 연출가 이력에 방점을 찍는 작품이 되기를 기원한다.

권 | 노력하겠다. 개인적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의 콘텐츠 선택은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한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찾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역사와 의미와 가치를 녹여낸 콘텐츠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시대적인 면에서도 잘 맞아떨어진다. 이를 전국적인, 아니 국제적인 콘텐츠로 키워가고 싶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보도**

“음악도시로서의 부평의 역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배우들의 연기를 어떻게 농익게 할 것인가 등의 고민을 통해 더욱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역사와 의미와 가치를 녹여낸 콘텐츠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시대적인 면에서도 잘 맞아떨어진다. 이를 전국적인, 아니 국제적인 콘텐츠로 키워가고 싶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공연 정보

기간

12월 17일(목) ~ 27(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3시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시야장애석 2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12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안내

032-500-2000

2014년도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 개발지원 사업
부평아트센터 창작 음악극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부평구 부평구문화재단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e & Arts Centers Association

후원 | HYUNDAI MOTOR GROUP 현대자동차 문화융성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최도현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장
대원인물(주) 대표

강경애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원
리디안우쿨렐레앙상블 단장

노태손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수석부회장
썬크빅문고 대표

지난 6월 5일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실에서는 특별대담이 열렸다. 올해 1월 출범한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원들과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부평구 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재단과 후원회가 할 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눴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애정 넘치는 조언들이 좌담회 내내 이어졌다.

정리 편집부 | 사진 전석병

후원회 확산은 지역문화 지지의 척도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창립 기념 특별대담

문화에 대한 욕망이 촉발한 문화재단 후원회

박옥진 | 바쁜 중에도 부평의 문화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 모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부평구문화재단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평아트센터, 부평구문화사랑방과 통합한 중요한 해다. 또 그런 시기와 맞물려 올해 1월 15일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가 창립총회를 하게 되었다. 창립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48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부평구와 같은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분들이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후원회로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후원회에 참여하신 계기가 있으시다면?

최도현 | 20년째 회사 경영을 하고 있는데 10여 년 전부터는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에 대해 고민하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회사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소득의 1%는 이웃과 함께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해왔다. 그러던 중에 회장으로 재직 중인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해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결성 소식을 접하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뜻을 같이하게 되었다.

노태손 | 평소 서점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척박한 점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문화야말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산이며 가장 친 환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창조경제'를 이룩하려면 창의력이 꼭 필요한데, 창의적인 생각을 키워주는 것이 문화 아닌가. 그러던 차에 부평구문화재단의 후원회 창립 소식을 들었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했다.

강경애 | 현장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로서 후원회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기도 하다. 그동안 공연을 보러 아트센터에 자주 왔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신뢰를 하고 있었다. 또한 문화예술 단체 지원과 육성에 적극적인 재단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싶었고, 보탬이 되고자 후원회에 가입했다.

"후원회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부평구문화재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 사회 속에서 넓게 수용되고
공유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한 사람 한사람의 후원 행위가
가족과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가치를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최도현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장

지역 주민과 지역 예술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업 후원 중

박옥진 | 후원기금은 지역 예술가와 예술단체 지원, 지역 콘텐츠 개발·발굴 및 재생산,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에 귀하게 쓰이고 있다. 문화재단 주도 사업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 외에 후원회가 부평구 문화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혹시 후원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사업은 없는가?

본다. 다만 장기적인 비전을 본다면 후원회가 후원사업 등에서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강경애 | 지금은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후원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 역시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재단의 순수하고 좋은 뜻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야 한다.

박옥진 | 부평구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문화재단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후원기금의 운용 내용을 공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세 번째는 문화재단과 후원회원들이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업진행 보고는 물론 후원회원끼리도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볼 예정이다.

주민 참여와 소액기부 활성화가 후원회 발전에 큰 힘

박옥진 | 주민들에게서 지역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는 문화재단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후원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노태손 | 기업회원은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문화 후원을 하게 된다. 반면 개인회원은 내 가족들이 누릴 문화를 내 손으로 가꾸어간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고액기부보다 소액기부가 사회적 의미가 크다. 단 천원이라도 기부를 한다는 것은 동의한

노태손 | 문화재단이 벌이는 사업을 주위에 알리는 역할 정도를 더하면 될 것 같다. 재정적인 후원을 빌미로 압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문화예술 후원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노태손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수석부회장

다는 것이고 참여 의사를 갖는다는 것이니까. 후원회에 소액기부자들이 많아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문화체험 등의 방법을 쓰는 것도 좋겠다.

박옥진 | 맞는 말씀이다. 후원회가 발족되고 회원들을 분석해 보니 개인회원은 중장년층, 50대, 60대 분들이 많았다. 다양한 세대의 기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문화재단으로서는 후원회원이 후원금 액수로서만 의미가 있지 않다. 후원회 운영 사업은 문화로 풍요로운 도시 부평을 만들기 위한 재단의 가치나 비전, 철학에 동참하고 동의해주는 사람들을 모으는 사업이다. 후원회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부평구문화재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 사회 속에서 넓게 수용되고 공유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도현 | 그런 의미에서 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후원회 자체를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평구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지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원행위가 가족과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가치를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박옥진 | 맞는 말씀이다. 그런 면에서 문화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부평구를 ‘음악융합도시’로 육성하기로 한 점은 큰 의미를 지닌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주체가 되어 앞으로 5년 동안 ‘문화도시’로 변신하게 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동참을 끌어내는 것도 문화재단의 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강경애 | 저와 같은 입장의 후원회원도 앞으로 많아졌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재단이 지역 예술가들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술을 하려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가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 없어지는 단체들도 많다. 부평 지역에서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도약하려고 정열적으로 활동하는 예술인과 단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아트센터 문턱 낮춰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이끌어낼 것

최도현 |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후원회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관심은 참여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주변에 전파된다. 문화재단의 사업에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공연장을 찾아오기 어려우므로 누군가 주위에서 ‘가보자, 관람을 거야’하고 끌어줘야 한다. 개인회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강경애 | 이미 후원회에 가입한 개인회원들이 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도 숙제라고 생각한다. 후원회원 가운데 상당수가 후원회비로 올해 진행되는 사업인 <우리동네 금요마실> 등의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유는 무엇인지, 참여를 유도할 좋은 방법은 없는지 다른 곳의 사례를 찾아보면서 꾸준히 연구해보아야 할 것 같다.

노태손 | 문화예술 후원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평 지역에서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도약하려고 정열적으로 활동하는 예술인과 단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강경에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원

다. 차범근 감독이 독일에서 돌아와 초등학생을 모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의아해했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들 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자 그 초등학생 가운데서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와 우리나라 축구에 기여하더라.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조급해 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예로 다양한 문화예술 동호회를 육성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강경에 | 부회장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본인이 기타를 배우고 관심이 있어야 기타연주 공연도 보러 온다. 재단에서 동호회 활동을 통해 예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많이 주고 페스티벌을 열어 상을 주는 등 지원을 하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도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트센터와 문화재단에 친근함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것은 다시 후원회원 가입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도현 |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되면 그들의 가족 등 지인들도 아트센터 많이 찾을 것 같다. 그렇다면 아트센터가 반드시 공연을 보러 오지 않더라도 ‘할 거리’를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식사든, 회의든, 놀이든, 아무 일 없이 찾아도 즐겁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같다.

박옥진 | 문화예술 경영 전문가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 방금 말씀 중에 문화재단이 계획하는 신규 사업이 두 가지나 들어있다. 하나는 아트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사랑방, 문화커뮤니티가 되도록 기능을 강화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 동호회원들이나 주민들이 아트센터에서 연습하거나 공연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의하러,

밥 먹으러도 올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아트센터가 가족 단위 주민들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쉼터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복합문화공간이지만, 그 공간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할 예정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아떨어진다.

최도현, 노태손, 강경에 | 우리도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 부평구문화재단의 여러 사업들로 지역주민들이 좀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

박옥진 | 오늘 긴 시간 자리해주셔서 감사하다. 후원기금이 더욱 뜻 깊은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후원회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얻을 수 있도록 문화재단 운영에 힘쓰겠다. 앞으로도 부평구문화재단과 부평구의 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애정과 조언 주시기를 부탁한다. **보다**

문화예술도시 부평을 디자인하다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김유정팀장

회색 도시에 문화의 색을 입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역사회는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왔다. 자치단체마다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찾아내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자 지역사회 변화의 동력이 싹텄다. 여러 변화 가운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는 특별히 각 자치단체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지역색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 확립과 고유한 문화자원의 활용이 커다란 화두로 등장하였다. 자치단체마다 지역 특성과 문화를 내세워 축제를 비롯한 갖가지 콘텐츠 개발이 붐을 이루는 상황이다.

부평구문화재단 역시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부평의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따라 2006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문화재단 가운데 10번째이며, 2015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설립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이 모두 53개인 것을 고려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랐다고 할 수 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확대와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여기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 인천 지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가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행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겼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문화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이라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은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도 다른 한편으로는 광역단위 기초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재정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부평구문화재단이 문화재단 고유의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한동안 문화시설 위탁기관의 역할에 머물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문화재단의 시작은 부평이 문화 불모지, 회색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문화도시 부평으로서 경쟁력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아울러 설립 이후의 모범적 운영으로 인천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실제 몇몇 자치단체는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데에 부평구문화재단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

성장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다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당시 부평에는 부평역사박물관과 소공연장인 문화사랑방 두 곳(부평-부개 문화사랑방), 그리고 기적의도서관이

문화시설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문화적 환경이 열악했다. 그러나 문화재단 설립 이후 현재는 부평아트센터를 비롯해 도서관 다섯 곳이 새로 건립되어 운영 중이어서 지역의 문화예술계는 물론이고 부평구민 모두에게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부평구문화재단은 그동안 지역의 문화시설 운영을 통해 부평 문화의 중심지이자 부평 문화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특히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등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발굴에 애써왔다. 기초단위 문화재단으로서는 드물게 지역의 문화자원을 개발하여 자체 레퍼토리를 제작하였으며, 부평문화포럼을 활용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열린 경영으로 문화재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자로 부평구문화재단의 조직을 크게 개편하여 기초단위 지역문화재단의 고유기능을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한 밑바탕을 마련했다.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은 물론 지역문화재단의 핵심적 역할인 문화정책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 사무국과 부평아트센터, 부평구문화사랑방을 부평구문화재단으로 통합했다. 그동안 위-수탁기관으로 나뉘어 불가피하게 중복되었던 업무와 인력을 재배치, 기획경영본부와 문화사업본부의 2본부 체계로 재편하여 재단 조직과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였다.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조정팀과 후원회를 비롯한 기관마케팅 전반을 담당하는 마케팅팀, 생활문화 활성화를 모색하는 지역문화사업팀을 신설하였다.

조직 개편 이후 불과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는 것이 다소 성급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미 드러난 성과도 적지 않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16년 문화특화도시(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음악-융합도시로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기초단위 문화재단으로서는 드물게 후원회를 발족하여 지역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문화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그리다

부평구문화재단은 2016년 이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다. 2006년 12월에 출범하여 이듬해 13명으로 업무를 시작한 부평구문화재단은 이제 2개 본부를 중심으로 100여 명의 문화예술 전문가가 문화도시 부평을 열어가고 있다. 공연시설인 부평아트센터와 사랑방을 직영하고 여섯 곳의 구립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세 개의

부평구립예술단을 운영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 부평을 대표하는 문화기관으로 성장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본부 중심으로 개편한 조직체계의 내실화를 꾀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라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다짐을 실천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 기업과 지역 예술가, 그리고 지역 문화기관이 트라이앵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일상 속에 문화예술이 스며들게 함으로써 문화도시 부평을 만드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올해 시작한 거점공간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각 기관이나 팀별로 지역 주민을 위한 대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지역 주민과 함께 창의적으로
재생산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대중음악
발상지라는 지역의 대표적 문화자원을 소재로 자체 제작한 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을 레퍼토리화하여 부평구문화재단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음악-융합도시를 바탕으로 한 문화특화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도 부평구문화재단의 주요 책무다. 지역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에 대한 DB작업으로 예술가·예술단체들의 작업 결과가 항시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작품을 유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식을 지속해서 모색하고자 한다.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도시 부평을 그려나가는 세련된 디자이너로서, 또한 제대로 된 만 관 협력기관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셈이다. '모두 함께 나누는 예술,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 모두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부평!' 이야말로 부평구문화재단이 꿈꾸는 내일이다. **보도**



한눈에 보는 부평구문화재단

보존에서 융성으로 변화하는
지역문화정책 패러다임

이무용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2014년 계획된 지역문화행사 다도문화, 지역문화전통 3대 기본법(지방문화원기본법, 문화기반법,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이 자리에서 2014년을 '지역문화 원년의 해'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

지역문화융성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1970년대 문화유산 보존과 예술진흥, 1980년대 문화진흥과 지방문화, 1990년대 문화복지와 문화발전, 2000년대 문화통합과 문화도시, 2010년대 국민행복과 문화융성으로 그 키워드를 달리하며 점점 발전해오고 있다. 한마디로 '보존→진흥→발전→융성'으로 그 성격이 융·복합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은 문화융성의 국정기조 채택과 문화예산 두 배 증액, 대통령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설립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지역문화정책 관련 법 제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 200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이어, 2013년 문화기본법,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지역문화정책의 법적 기반이 완성된 것이다. 2014년을 지역문화정책의 원년으로 부르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4대 기본원칙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활문화 활성화 여건 조성, 지역문화의 고유 원형 우선 보존이 설정되어 있다. 이에 근거해 현재 수립 중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로 행복한 지역 창조'를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지역문화 균형 발전 토대 마련, 문화를 통한 지역 가치 창출의 3대 추진 목표와 지역문화 역량 강화, 지역문화 격차 해소, 지역문화 발굴 창조의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9대 과제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생활문화 진흥,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문화접근성 향상, 문화재원 다각화, 지역문화유산 보존 활용, 지역문화 가치 발굴,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를 담고 있다. 한마디로 지역문화진흥의 키워드는 역량, 균형, 가치, 인력, 생활, 생태계, 맞

중형, 브랜드로 요약된다. 이러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더불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희망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문화 육성 사업과 문화융성위원회의 8대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자원 확충 사업이 서로 결합하여 본격적인 지역문화육성 정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역문화육성 관련 과제 중 지역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요약해보면 '지역문화 가치 발굴→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진흥→지역문화주체 역량을 통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치 발굴의 중요성



홍대앞 유일의 동네잡지로서 커뮤니티 멤버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스트리트 H'



2014년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통영의 꿈을 그리는 언덕마을 동피랑



2014년 생활문화센터로 선정된 서산생활문화센터의 서산행버오카리나양상을 공연 모습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역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지역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규명하고, 그에 걸맞은 문화자원을 파악하며, 그 자원을 콘텐츠화하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브랜드로 만드는 일명 'IRCB(장소성Identity→자원Resource→콘텐츠Contents→브랜드Brand)' 과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장소성 규명은 지역의 역사와 환경, 생활양식과 문화, 이미지와 상징, 고유성과 특성에 대한 조사·분석·토론을 통해 지역의 얼굴, 즉 지역다움을 그려내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지역문화 지도를 만들어볼 수 있다. 주제·일상·문화·공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문화지형도, 문화 정체성 지도, 지역상징 지도, 문화집단군 지도, 문화접근 지도, 문화자원지도 등 양적·질적 지역문화 다양성 지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정서와 장소감에 대한 주기적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원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시설·환경(하드웨어), 프로그램·사건·이야기·제도(소프트웨어), 사람·단체·조직(휴먼웨어)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자원의 조사·분석·발굴과 매핑·아카이빙을 통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소규모 유희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 아카이브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문화 전시·교육·판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자원들 중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의 문제를 발견→공유→해결하기 위한 지역문화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콘텐츠를 구상하고, 지역문화자원과 아카이브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를 개발·육성·체험하며, 장소성에 기반한 지역문화 예술기업과 생활권별 지역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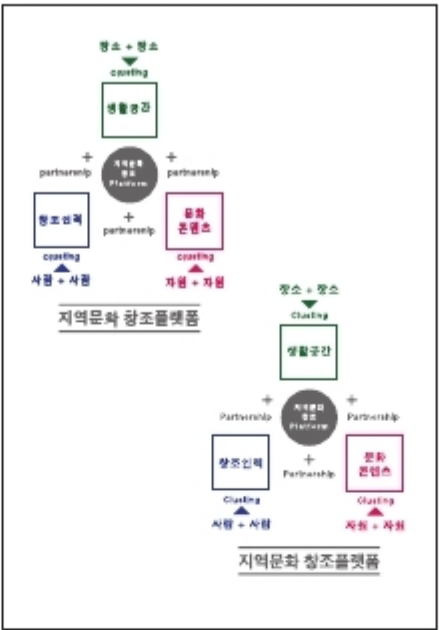
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민·방문객·투자자 등 고객이 신뢰하는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가치라 일컫는 지역문화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즉 지역문화 콘텐츠들 중에서 지역특화 가치를 중심으로 묶어낸 통합 브랜드라 할 수 있다. 일례로 문화도시·문화마을·문화지구와 같은 지역문화 특화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역밀착형 생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지역의 문화가치는 주민들의 삶 속에서 공유·활용되어야 진정한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역밀착형 생활문화의 진흥이다. 우선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유희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문화의 거점인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국공립 문화공간을 주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며, 서점·카페·식당 등 민간 여가시설도 공공 공간화해서 최대한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정 지역의 문화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지역문화 패스제와 특정 지역을 지역문화구역으로 설정하는 지역문화존 사업도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검토해볼 만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지역의 인구 변화와 주민들의 문화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지역문화 지도(문화지형도·문화기상도 등)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의 문화접근성을 향상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생활문화 공동체의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민 주도의 자생적 생활문화의 형성을 지원하고,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을



지역문화 창조플랫폼의 3대 클러스터형 모형

확대하여 생활문화 참여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화취약지역의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과 학생층의 생활문화 수요층 편입, 문화자원봉사 매칭 시스템 구축을 통한 문화공헌활동의 활성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주체 역량 강화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의 문화가치 발굴과 생활문화 진흥은 지역문화 주체의 역량 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을 통해 현실화 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주제 역량 강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청년 인력 발굴, 문화귀촌 활성화, 창조인력의 지역문화활동 연계, 지역문화 지도자 인식 전환 교육, 현업 종사 전문인력 지원, 인적자원 종합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주제 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지역문화재단이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의 핵심 주체로서 지역의 문화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문화재단 조례 제정과 지침 마련을 통해 문화재단의 정책적 위상과 실질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재단의 위상과 기능은 지역문화 가치와 정체성 정립,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지역문화 다양성 지도 개발과 지역문화자원 발굴에서부터 지역문화 컨설팅 수행기관, 지역문화 진흥 자문사업단,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같은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사업 지원 역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지역문화재단의 역량에 따라 관련 사업도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추



아트센터, 도서관, 문화사랑방, 청소년수련관, 합창단,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는 북항문화코디네이터형 재단인 부평문화재단의 2015부평키즈페스티벌 포스터

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지역문화재단의 고유 사업은 아니다.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지역 대학 등 지역 문화기관·단체들과의 협업 체계 구축과 역할분담을 위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문화 주체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과정을 설계하고, 지역의 공간·인력·콘텐츠가 만나는 창조 플랫폼과 클러스터 형성을 누가 어떻게 해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역문화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해본다.

지역문화 융성 정책은 이제 시작이다. 3대 지역문화 융성의 영역, 즉 지역문화 가치의 융성, 지역주민 문화향유의 융성, 문화를 통한 지역의 융성이 삶 속에서 현실화되어 문화로 옷 입고, 밥 먹고, 꽃피우고, 기세우고, 입 맞추는 진정한 지역문화의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보다**

밤을 늦추는 한낮의 음악선물 프랑스 음악축제 Fête de la Musique



올해의 주제, ‘음악과 함께 살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6월 21일, 낮이 가장 긴 날인 하지(夏至)에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인 ‘음악축제(Fête de la Musique)’가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현재 프랑스 문화부 장관인 플뢰르(Fleur Pellerin)의 말에 따르면, 올해로 34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이미 프랑스 국민에게 “일 년 중 하루, 거리에서의 만남을 당연시하게 되는 습관 같은 날”이 되었다. 올해 역시 축제의 오랜 역사와 위용을 자랑하듯 큰 광장이나 공원에서는 크고 작은 규모의 콘서트가 열렸고, 작은 공원이나 골목마다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자리해 도시의 곳곳에서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올해 음악축제는

‘음악과 함께 살다!’라는 테마로 전문 음악가와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즉흥으로 함께 연주하고 관객들과 호흡하는 등 성공적으로 펼쳐졌다.

‘문화 민주화’로 이루어낸 전국적인 축제
1982년에 처음 개최된 이 축제는, 프랑스의 문화대통령이라 불리는 미테랑 대통령(Francois Mitterrand) 재임 시절의 문화부 장관이었던 자크 랑(Jacques Lang)의 주도하에 처음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1%에 해당하는 등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자크 랑은 예술창작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 산업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이전까지 예술 장르로 인정받지 못했던 재즈, 록, 만화, 패션, 그래피티, 서커스, 거리예술 등의 장르를 새로운 예술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문화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사격을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현재 프랑스의 대표적인 축제나 특정 예술 장르가 이처럼 치밀하게 계획된 문화정책 하에 오랜 시간 동안 유지 및 발전시켜 온 결과물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프랑스의 문화예술이 정부 및 정책과 떼어낼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시 프랑스 문화부는 ‘문화 민주화’라는 표제 아래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펼쳤는데, 음악축제는 그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이다. 축제 첫해인 1982년 6월 21일, ‘누구나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들고 나와 거리에서 함께 연주하자!’던 소박한 축제 의도는 예상 밖의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파리 도심에 3만 명의 청중이

박다솔
공연기획자, 자유기고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연주자들과 함께 거리행진을 하는 등 프랑스 국민의 폭발적인 반응과 관심으로 점차 축제의 규모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첫해에 파리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축제는 해를 거듭해 나가면서 점차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가 되었다.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음악의 향연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경계 없이, 자유롭게 거리의 어느 곳에서든 연주할 수 있다는 초기의 축제 목표를 유지하면서 그 형태는 점차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전국의 공공기관과 미술관, 도서관, 교도소, 병원 등의 실내 공간뿐 아니라 펍(Pub)이나 식당 등 실외 공간에서도 이뤄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주자에게 연주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청중들에게 공연을 무료로 제공할 것을 축제 참여의 첫 번째 행동지침으로 삼았다. 이로써 음악축제에 참여하는 연주자, 거리 및 실내의 연주 공간, 청중은 상호 간에 대가나 담보 없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파리에서 벌어진 음악축제는



30여 년간 발전되어 온 축제의 면면을 잘 드러내주었다. 프랑스는 가을까지 6개월간 표준시를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Summer Time)제를 시행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한 시간 잠을 내어놓고, 6개월간 햇빛을 얻는다’고 표현할 만큼 오후의 햇살을 좋아한다. 일 년 중 햇살이 가장 길게 쬐는 날인 6월 21일, 발길 닿는 곳마다 음악이 들려오는 날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해는 프랑스 전역에서 500만 명의 연주자에 의해 1만 7천 회 이상의 공연이 열렸고, 천만 명이 넘는 프랑스인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오후 2시부터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문화부의 공식 프로그램이 공연된 팔레 루아얄정원(Jardin du Palais Royal) 외에도 오르세미술관, 퐁피두센터, 파리 북역 광장, 아랍세계연구소, 생 외스타슈성당 등의 장소에서 축제가 진행되었는데, 참여 공간이 다양하고 각 공간의 성격이 분명한 만큼 재즈, 힙합, 오케스트라, 아카펠라, 록, 포크 등의 여러 장르의 음악이 각 공간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연주자와 관객의 경계를 허문 참여형 축제
특히, 팔레 루아얄정원에서의 공연은 올해의 축제 테마 ‘음악과 함께 살다!’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올해는 축제 홍보와 함께 관객들에게 ‘본인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들고 공연에 와달라’고 사전에 광고했다. 무대와 객석 간 경계를 허물어 전문 음악인과 아마추어 음악인이 즉흥연주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기 때문이다. 메인공연인이 즉흥연주를 주도해나간 연주자는 유명

재즈 뮤지션인 이브라힘 말루프(Ibrahim Maalouf)였다. 그는 수많은 관중 사이에 섞여 있는 아마추어 연주자들에게 즉석에서 주선율을 연주해달라고 요청하고, 그의 빅밴드는 그 선율에 다양한 악기로 멜로디를 얹었다. 그리고 관중에게 스캇(Scat)으로 노래하도록 유도하며 곡 하나를 완성해나갔다. 완성된 곡을 다 함께 연주할 때에는, 객석 곳곳에서 악기를 든 연주자들이 즉흥적으로 곡의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모습이 가히 장관이었다.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센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음악원 학생들이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연주를 하거나, 오래된 성당 앞 공터에서 힙합 공연을 하는 흑인 그룹도 있었고,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와 타악기 그룹의 공연 등도 눈에 띄었다. 놀랄 만큼 훌륭하게 흥겨운 연주를 해내던 연주자들이 있었고, 다소 부족한 실력으로 열심을 다해 연주하던 연주자들도 있었지만, 그 음악들이 행인의 발목을 자연스레 붙잡으며 길목마다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빈 모자를 행인들에게 내어놓는 대신, “찍은 사진을 보내주세요”라는 문장과 함께 이메일 주소가 써여 있는 피켓을 내려놓는 풍경도 소박한 웃음을 자아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축제
음악축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ADCEP(Association pour le Développement de la Création, Etudes et Projets, 창작·연구·프로젝트 진흥협회)나 DRAC(Direction Re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지역문화사업국)는 음악축제를 통해 음악 교류의 장을 형성하고, 대중들이 더욱 쉽게 다양한 음악 장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올해는 음악축제의 주요 공연들을 인터넷으로 관람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음악가들끼리 즉흥연주를 주고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를 오픈했다. 축제 이후에는 공식 홈페이지에 축제 때 공연되었던 공연자들의 음악과 함께 리스트를 올려 대중에게 공개했다. 음악축제를 단순히 야외행사로 인식하여 축제의 공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축제성을 일상에 연결시키고 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음악축제는 1985년 ‘유럽 음악의 해(Année européenne de la Musique)’를 맞으면서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고, 유럽 대다수 국가를 포함해 현재는 120개 국의 700여 개 도시의 대표적인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 년에 단 하루, 어딘가로 향해 걸어가든 몸속으로 동시에 밀려오는 여러 음악 소리가 기본 좋게 중첩되었다가 등 뒤로 아쉽게 흘러가기를 반복하고, 거리의 익자한 소음이 불쾌하지 않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날, 여름축제의 한낮의 흥겨움이 어둠을 부지런히 밀어내고 있었다. **박다**



박다솔 (공연기획자, 자유기고가)
박다솔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를 졸업했다. 극단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에서 프로듀서를 맡았고, ‘양손프로젝트’, ‘상상만발극장’ 등 여러 단체의 공연을 기획, 제작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와 ‘남산예술센터 드라아센터’에서 제작한 바 있으며, 2013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무용평론으로 ‘젊은비평상’을 수상한 이후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함께 나누는 예술,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 부평’으로 가는 길은 오월의 햇살 아래
아이들 웃음처럼 행복하기만 하다

인사이드 부평 :
부평구문화재단의 현황과 2015년 상반기 주요 프로젝트를 깊은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ZOOM IN

- 01 — 부키프
- 02 — 쌍쌍맨쓰

VIEW FINDER

- 01 — 부평하모니프로젝트
- 02 — 금요마실

관람과 체험이 행복하게 어우러진 축제

예술로 놀자, 부키프!



①
5월 5일 <초록누리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②, ③
<초록누리축제>에 마련된
캘리그래피 체험 부스, 소원지
쓰기 코너

축제는 크게 공연 위주의 ‘관람형 축제’와 이벤트 위주의 ‘체험형 축제’로 나뉜다. <부평키즈페스티벌(BUKIF 부키프)>은 각종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와 부대 이벤트까지 짜임새 있게 배치해 이 축제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만족하는 지역축제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공연장과 야외광장에서 진행된 올해의 <부키프>는 야외행사인 ‘초록누리축제’에 3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다.



글 편집부 | 사진 이선호

상상력 넘치는 전시와 공연, 축제의 문을 열다

<부키프>는 현대미술 전시회 <Wonderland, Neverland>로 문을 열었다. K-POP 아트센터에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작품 세계가 조각, 혼합매체, 설치 등 다양한 표현 양식으로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에 펼쳐졌다. 전시장 이곳저곳에선 어린 관객들이 만화 캐릭터를 닮은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작품들을 보며 즐거워했다.

5월 2일 해누리극장에서는 <라바가 들려주는 키즈 클래식>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역시 어린이들에게 인기 최고인 애니메이션을 매개로 한 공연이라 호응도가 높았다. 애니메이션 영상 속에 등장하는 클래식을 소개하며 연주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콘서트에서 어린 관객들은 클래식 감상의 즐거움을 새로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 날인 3일부터 <할락궁이의 모험>을 공연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은 무대뿐 아니라 객석까지 극장 전체가 득씩들썩했다. 막이 오르기 전, 극의 해설자 역할인 ‘생불함망’이 가르쳐주는 ‘서천꽃밭’ 노래를 따라 부르고 ‘열씨구! 좋다!’는 주입새를 배우면서 어린 관객들의 얼굴은 이미 상기되기 시작했다. 등장인물들이 객석 뒤쪽 출입문에서 객석을 통해 나타나면서 극장 전체가 무대가 되었으며, 어린 관객들은 배우들과 말을 걸고 훈수를 둘 정도로 공연 내내 극과 함께 호흡했다. 무명 병풍 두 쪽, 긴 대나무 장대, 푸른 천 등 미니멀한 무대 장치가 오히려 어린 관객들의 상상력을 한껏 부풀렸다.

<할락궁이의 모험>은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자체 제작한 어린이 창작음악극으로, 주인공인 할락궁이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서천꽃밭’으로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는 제주도 설화의 내용을 담았다. 국립극단의 이병훈 연출가와 오은희 작가, 신동일 작곡가, 박소연 편곡자 등 최고의 제작진이 만든 작품으로, 지난해 초연한 것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다시 올렸다. 무대 한편에서 연주자들이 직접 연주하는 라이브 국악 선율과 수준 높은 연출·연기가 품격 있게 어우러져 명품 공연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①
뜨거운 햇빛 아래에도 관객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②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자체 제작한
<할락궁이의 모험>

③
체험 코너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열심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④
'몸풀'의 퍼포먼스 <바퀴>는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퍼레이드형 퍼포먼스였다.





문화와 지역 주민의 뜨거운 하모니 '초록누리축제'

호응도 면에서는 단연 5월 5일 어린이날에 열린 '부키프 초록누리축제'가 최고였다. 무료 야외 공연과 각종 체험행사가 부평아트센터 구름광장과 잔디마당 일대에서 벌어졌고 3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 모처럼 만의 나들이를 즐겼다.

부대행사로 열린 <어린이 그리기 대회—나는야 아티스트!>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손길도 바빴다. 여기저기 펼쳐진 그늘막과 돛자리에 앉아 도화지를 앞에 놓고 붓과 크레파스를 든 꼬마 예술가들의 표정이 진지했다.

본격적인 축제는 오후 한 시 '부평하모니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시작되었다. '부평 하모니합창단'은 <소리를 더하다>라는 부평구 가족합창단 프로젝트다.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에 등장한 '부평하모니합창단'은 서로서로 눈을 맞춰가며 그간 흘린 땀으로 엮은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주었다.

이어 '스피릿앙상블'이 만들어내는 금관 5중주의 아름다운 선율 <금관악기와 함께하는 즐거운 동요세상>, '퍼니스트'의 마임 <퍼니스트 코메디 서커스>, '버블엔젤'의 버블쇼 <매직 버블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립도서관 등이 참여해 꾸린 부스에선 다양한 체험행사도 벌어졌다. 워낭 꾸미기, 페이스 페인팅, 리폼 카네이션 만들기, 머그컵 만들기, 도자기 목걸이 만들기, 캘리그라피 체험, 펠트로 교통카드 지갑 만들기, 성문화 체험교육, 부평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글짓기 등이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한쪽에선 어린이들이 굴렁쇠 굴리기, 팽이 돌리기 등의 민속놀이를 하거나 커다란 '짚신 자동차'를 밀고 끄느라 왁자지껄했다. 귀여운 호박 표식을 찾는 보물찾기도 함께 진행되었다.

퍼레이드 퍼포먼스 '몸결'이 구름광장을 가득 채우며 관객과 함께 펼친 <바퀴>공연도 이어졌다. 마지막 공연인 어린이 응원단 '퍼스트'의

<어린이 치어리더>공연의 활기찬 몸짓에 환호한 관중들은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축제의 끝, 또 다른 시작을 꿈꾸다

'축제'의 피날레는 해누리극장에서 5월 9일과 10일 양일간 올려진 가족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장식되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루이스 캐럴의 너무나 잘 알려진 원작 소설을 서울발레시어터 상임안무가 제임스 전이 참신하고 기발하게 가족 발레로 재해석한 작품. 대사 한 마디 없이 춤사위와 몸짓으로만 끌어가는 공연임에도 관객들의 눈망울은 초롱초롱했다.

아이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손을 잡고 <부키프>를 찾은 부모들의 선택은 적중했다. 하지만 실제 만난 <부키프>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었다. 어린이들이 상상력 넘치는 미술 작품과 공연을 보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꿈을 키워가는 동안 부모들도 문화예술에 흠뻑 빠져 즐거움을 나눴다. 관람과 체험이 행복하게 어우러진 축제, 어린이와 어린이의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축제의 얼굴이었다. 더 성장할 내년의 <부키프>가 벌써 기대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보다**



①, ②
3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초록누리축제>를 찾아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을 즐기며 어린이날을 만끽했다.

③
'나는야 아티스트'에 참여한 어린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④
부평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의 아름다운 합창 공연.

⑤
신기한 매직 버블 공연은 어린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Shall We Dance?! 가족과 함께 쌍쌍댄스

부평문화사랑방 가족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현장 취재

글 편집부 | 사진 온소리



부평문화사랑방은 포크댄스, 현대무용, 마임, 발레, 탈춤까지 가족이 함께 다양한 장르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며 몸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 <쌍쌍댄스>를 진행했다. 낯설고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춤에 대한 거리감 해소와 더불어 누구나 즐기며 춤출 수 있는 흥겨운 체험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사랑방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은 물론 이웃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생활 속 예술 체험공간으로서의 문화사랑방'을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기를 기대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던 <쌍쌍댄스> 현장을 소개한다.

'볼금'의 신나는 가족 춤바람

인천 부평구 갈산2동주민센터 3층에 있는 부평문화사랑방은 2003년 개관하여 지역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공연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작지만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오늘은 '볼금반(불타는 금요일 반)' 참여자들이 <쌍쌍댄스> 프로그램의 마지막 강자인 봉산탈춤을 배우는 날이다. 초등학교 이상 가족 중 두 명이 한 쌍을 이뤄 참여할 수 있는데 모두 여섯 쌍이 모였다.

시작도 하기 전에 어머니와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대 섞인 환한 미소가 가득하다. 세계 각국의 문화가 담겨있는 다양한 민속춤, 소품을 활용하거나 주제에 맞는 춤을 구성해 신체의 감각을 깨우는 현대무용, 몸의 균형과 표현력을 키우는 마임놀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트린 발레 등 이전에 시행된 프로그램이 뜨거운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사랑방 교육 담당자의 소개에 따라 어머니와 아이들의 격한 박수를 받으며 강사가 입장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듯 생각 외로 젊은 강사의 출현에 모두가 어안이 병병해 있던 찰나, 초등학교 꼬마가 예상치 못한 한마디를 날렸다. 어? 잘생겼다! 강사의 얼굴은 새색시처럼 연분홍빛으로 물들었고 다른 참여자들은 웃음폭탄을 터트리며 말했다.

봉산탈춤 즐거운 춤사위에 열쑈!

즐거움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강연이 시작됐다. 강사의 간단한 이론 설명이 끝난 뒤 모두 작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봉산탈춤의 기본이 되는 동작을 하나둘 따라 해보았다. 볼림, 외사위, 겹사위, 양사위, 다리 들기 등등.

"자, 보세요! 낙양동천 이화정, 얼쑈~ 덩, 따, 덩, 따 어얼쑈~ 다시 해볼까요?"

"선생님! 신나 보여요!"

"그건 네가 신 나서겠지?"

장차 제2의 신동업을 꿈꾸는, 초등학교 꼬마의 유머러스한 두 번째 돌발 발언이 이어지니 참여자 모두 다시 웃음바다가 됐다.

1교시가 끝나고 2교시 때는 봉산탈춤 2과장인 팔목중춤 중에서 개인 먹중춤 등 대표적인 춤을 배우고 사설과 연결하는 동작을 익혀보았다. 또한 직접 탈을 쓰고 이제껏 배운 춤 실력을 겨뤄보기도 했다. 꼬마 숙녀들의 앙증맞은 춤사위는 어머니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때 어머니들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사랑방 교육 담당자도 잠시 참여했다. 영혼을 불태우는 신들린 춤을 선사해 좌중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고 강사의 두 눈을 번쩍이게 만들었다.

마지막 3교시는 팔목중춤 중에서 합동 춤을 배웠다. 기본무를 바탕으로 개인 춤이 끝난 후 다 같이 추는 춤이다. 강강술래 하듯 원형으로 빙 둘러선 참여자들은 마지막 열정을 쏟아 부었다. 이로써 즐겁고 흥겨웠던 봉산탈춤 강연이 일단락됐다.

다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은 다음 조출한 다과회를 열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꿀수박, 과자, 음료수를 마시며 참여자들은 못다 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보다**

춤이란 예술과 친근해진 소중한 기회

Q.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니까 어떠셨나요?

A. 평소에 아이랑 어디로 먹으러 간다든지 놀러 가는 일은 많지만 무언가를 같이 해볼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함께 어울려 여러 가지 춤을 배우니까 자연스레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문화 프로그램이어서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보다 아이가 자신감도 많아지고 활발해져서 정말 뿌듯하네요.

송호진 / 주부(38세)

Q.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예술 장르를 접해서 정말 좋았고요. 앞으로 이런 시간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민요를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훌륭한 가족 프로그램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다른 분들께도 적극 권해드리고 싶어요.

서다숙 / 주부(45세)

Q. 오늘로써 <쌍쌍댄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났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부모님들께서 별도로 시간을 내셔서 아이와 함께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회가 거듭될수록 너무 즐거워하시고 참여자분들끼리도 정말 친해지셨어요. 참여하신 분들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동아리나 동호회를 만드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가족프로그램은?

A. 하반기에 유아와 엄마가 함께하는 오르프(음악), 연극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요. <쌍쌍댄스> 관련해서 영화 속 한 장면에 나오는 댄스를 배워보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여인의 향기, 탕고', 이렇게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동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넓힐 예정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비도 좀 더 저렴하게 책정할 생각이고요.

한송희 / 부평사랑방 운영팀



<쌍쌍댄스> 봉산탈춤 교실에 참여한 어린이가 볼림 동작을 취하고 있다.

Q. 강의를 진행해보니까 어땠나요?

A. 지난 회에는 마임, 포크댄스처럼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라고요. 아이들이 연령대가 조금 낮아서 탈춤을 좋아할지 걱정했는데 어머님들이 옆에서 잘 북돋워 주셔서 진행이 훨씬 수월했네요. 각자가 아닌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이라서 더욱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전통연회는 어렵거나 지루하다는 선입관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그런 인식들이 하나둘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송치호 / 봉산탈춤 강사(한국 예술종합학교 연희과 졸업, 청배연희단)

부평문화사랑방

찾아가는 법 : 인천지하철 1호선 또는 7호선 부평구청역 2번 출구, 도보 8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73 갈산2동주민센터 3층
http://www.bpci.or.kr / 032-505-5995

부평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

15주의 기적,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화음



합창을 통해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는
부평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의 상반기 활동이 모두 끝났다.
참여한 가족들은 '15주 동안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말한다.
도대체 부평아트센터 지하연습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글 편집부 | 사진 전석병, 이현주

“가족합창단원 56명 모집”의 의미

지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부평문화재단은 부평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에 참가할 총 56명의 가족합창단원을 모집했다. 단원 수 56명은 56만 부평구민을 대표한다는 의미다.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 20가족, 59명의 단원이 모였다.

“평소 가족 모두가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플루트를 불고 동생은 우쿨렐레를 연주해요. 엄마는 음악 감상을 즐기시고요. 공연 보러 부평아트센터를 자주 찾는데 공고를 보고 재미있을 것 같아 참가하게 되었어요.”

초등학생 중 가장 맏언니로 엄마, 여동생과 함께 참여한 민지원(13세) 어린이의 말처럼, 대부분의 단원들은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던 평범한 시민들이다. 하지만 이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존 합창단들과는 다른 특별한 요소 한 가지가 이들을 부평하모니프로젝트에 참가하게 했다. 바로 ‘가족과의 소통’이다. 참가자 이선배(41세) 씨는 말한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큰아이가 온 가족이 함께 노래하고 싶다고 해서 참가하게 되었어요. 토요일은 교회 일로 바쁘기도 하고 아들만 둘이라 좀 더 활동적인 걸 함께하고 싶었지만 음악으로 공감대를 넓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지요.”

사업 담당자인 지역문화사업팀 최은정 대리도 가족이 파편화·개인화 되어가는 위기 속에서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나의 목소리를 더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합창이다. 음악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를 통해 화합을 이뤄가기에 합창만 한 것이 없는 이유다.

“음악으로 행복해지고 싶었다!”

이렇게 일곱 살 유치원생부터 일흔 살 할머니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합창단 <소리를 더하다>가 탄생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5회에 걸쳐 부평아트센터 지하 중연습실에 모여 노래와 율동을 연습했다.

합창 지도는 렘넌트신학연구원 교수이자 울산시 남구 구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활동 중인 이태은 지휘자가 맡았다. 가족 합창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그의 아내인 원니스필하모니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박진옥 씨가 반주를 담당했다.

“처음 합창단 지도 제안을 받았을 때 물었죠. 프로젝트의 목적이 ‘가족 합창단을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 ‘합창을 통해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이냐고요. 전자라면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음악적으로 교향악단 지휘자가 합창 지휘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 안에 개개인의 소리를 다듬고 모아내는 것은 성악가 출신의 지휘자가 훨씬 더 잘할 테니까요. 그런데 목적이 후자라고 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저보다 잘할 사람도 드물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태은 지휘자는 재차 이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해지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 자신도, 참가자들도 훌륭한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을 함께함으로써 결국 아름다운 하모니에 이르는 것.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달기 어려운 이상적 목표를 향한 것이다.

하모니프로젝트는 합창단 아닌 부모학교?

이태은 지휘자는 참가자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친근하고 크게 어렵지 않은 뮤지컬 ‘사운드오브뮤직’의 테마곡인 ‘도레미송’, ‘에델바이스’, ‘So long, farewell’을 골라 율동과 함께 노래하기로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점잖게 서서 노래만 하면 숨을 곳이 없어요. 노래를 잘 못하면 존재감 자체가 없는 거지요. 성악가 출신의 훌륭한 실력을 가진 분도 계셨지만 평소 노래를 잘 안 해보신 분도 있었어요. 가족끼리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인데 어려운 연습을 강요하면 어땠겠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은 ‘립싱크를 하라’고 하기도 했어요. 편안하게 음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애썼지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장난을 쳐도 지휘자는 부모들에게 ‘봐 두시라’고 했다. 하지만 산만하던 아이들은 조그만 일에도 칭찬해주고 북돋워주는 지휘자 ‘아저씨’에게 곧 반하고 말았다. 딸 이지아(9세), 남편 이동호(43세)씨와 함께 참가한 송희정(43세)씨는 피아노 앞에 조로록 앉아 지휘자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흡사 아이들을 바라보는 ‘팬’ 같았다고 말한다.



어린이날 <부키프> 무대에 선 부평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 뮤지컬 <사운드오브뮤직> 속 테마곡들을 율동과 함께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려주었다.

“부모들도 합창단이라기보다는 엄마학교, 아빠학교에 다니는 기분이었어요. 힘들면 하면 쉬는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때문인지 연습이 힘들지 않고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이 때문일까? 처음엔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던 부모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보다 더 적극적이 되기도 했다. 송희정 씨 남편 이동호 씨의 경우도 그랬다.

“주중에 해외 출장이 잦은 남편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걸 이해 못했어요. 연습 첫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하며 입을 비죽였죠. 저는 ‘있어만 달라’고 부탁했고요. 그런데 점점 적극적이 되더니 나중엔 자기가 먼저 준비하고 현관에 나와 시간 맞춰 가자고 나와 아이를 끄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출장에서 돌아올 때면 공항에서 연습실로 바로 오기도 했죠. 반주를 휴대폰에 녹음해서 집에서나 출장 중에 이동하면서나 놓지 않고 연습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어요.”

무대 발표가 준 또 하나의 감동

프로젝트가 편안하고 느긋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9회 차 연습 후엔 <부평키즈페스티벌> 무대에, 프로젝트 종료 후엔 <부평예술제> 무대에 오를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두 공연은 참가자들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제공하고 높은 집중도를 발휘하게 했다. 발성 훈련, 악보 읽기, 파트별 연습과 종합 연습, 안무... 연습 일정들은 빠짐없이 돌아갔고 참가자들의 실력도 부족부쩍 늘었다. 이태은 지휘자는 실력만으로 봤을 때 프로젝트 시작 전 기대했던 것보다 두세 배는 더 성공적이었다고 말한다.

“말이 15회지, 일주일에 한 번씩 15회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열심히 연습해도 다음 주에 오면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도 ‘왜 잊어버렸냐’ 하지 않았어요. ‘잊어야 살죠, 잘하셨어요’ 했죠. 부담을 줄여드리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부평예술제> 무대는 아쉽게도 취소되었지만 <부평키즈페스티벌> 공연은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합창단은 가족끼리, 친구끼리, 서로 서로 눈을 맞추며 그동안 연습한 노래와 율동을 열정적으로 선보였다. 야외무대 앞 잔디밭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합창단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민지원 어린이는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는 무척 긴장이 되었지만 그간 열심히 연습한 다른 가족들과 같이하니까 떨림은 곧 사라졌다’고 말한다. 사업 담당자인 최은정 대리에게는 프로젝트의 성과가 보이는 자리였다.



① <부키프>에 참여한 많은 관객들 앞에서 율동과 합창을 선보이는 ‘부평하모니프로젝트 합창단’단원들.

② 단원들은 학자지절 웃음꽃을 피우다가도 연습에 들어가면 모두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 음악에 빠져들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느껴온 따뜻한 분위기가 무대 위에서 오롯이 관객들에게 전달되어졌다고 느꼈어요. 부모님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을 경험했던 어린이들이 성장하여 이루는 가족은, 조금 더 따뜻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하모니프로젝트’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들의 꿈, 소망, 사랑을 이뤄준 프로젝트

각각의 가족들에게도 그들만의 결실과 보람이 있었다. 이선배 씨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이해하는 계기, 이웃과 삶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내가 성가대 솔리스트고 제가 예배 인도자다 보니, 서로의 소리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지만 아이들의 소리는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연습 중간중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더 알게 되었고 집에서의 대화 시간이 훨씬 늘어난 것도 좋았습니다.”

송희정 씨는 올 연말 오랫동안 망설여왔던 ‘가족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솔직히 우리 가족은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음악은

좋은 하지만 왠지 좀 먼, 특별한 것으로 여겨졌지요. 그런데 가족이 다함께 즐겁게 노래를 하다 보니 음악이 자연스럽게 편안한 것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만 있을 뿐 실천을 못했던 ‘가족콘서트’를 연말에 집에서 열 생각이예요. 아이는 평소 연습했던 피아노 연주를 하고,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 아이 아빠도 딱 한 곡 연습해서 연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서, 셋이 함께 노래를 할 겁니다.”

민지원 어린이에게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디딤돌이 되었다.

“아나운서가 꿈인데, 하모니프로젝트 참가로 자신감이 생긴 것

부평하모니프로젝트를 이끈 이태은 지휘자

“소통은 아낌없는 배려와 칭찬에서 나옵니다”

‘부평하모니프로젝트’에 참가한 부모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아이들 때문에 참가했는데 결국 부모들이 더 힐링이 되고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된 것 같다’는 말이다. 가족 합창 프로젝트가 어떻게 ‘힐링캠프’가 될 수 있었던 걸까?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인가?

사랑과 칭찬으로 참가자 각자 자신의 속에 있는 보석을 켤 수 있도록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일이었다. 대학 졸업하고 시골중학교 음악 선생으로 5년 간 있었는데, 그곳에서 걸도는 아이들도 관심과 사랑만 보여주면 변화되고 빛이 나는 것을 목격했다. 나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다. 고등학교 시절, 공부에 취미가 없고 키도 작아 소심했던 내게 ‘노래 부를 때 음정, 박자가 정확하다’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신 선생님 덕분에 늦게라도 음악 공부를 시작할 용기를 냈다. 그 후에도 여러모로 부족한 나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덕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현재 프로 음악가가 되지 못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로 꾸린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기도 하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사람 속의 음악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다.

일곱 살에서 일흔 살까지, 실력도 제각기인 이들에게서 하모니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지휘자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렵게만 생각할 것 같아서 일단 나부터 오픈했다.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부부 싸웠한 이야기며, 아내와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이야기며,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다. 그렇게 큰 상처와 아픔에서 감사하게 회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털어놓자 부모들도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으며 편안해했다.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뛰고 장난쳐도 그냥 두고, 연습 대항도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기억에 남는 참가자는?

어느 초등학교 남자아이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무슨 활동을 해도 반응이 없었다. 꼭 안아주고 ‘너만의 깊은 생각과 에너지가 보인다’고 칭찬해주었다. 그러자 그 아이가 프로젝트 마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독창을 했다. 아이 어머니가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노래를 하거나 음악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고, 음악회를 데려가 달라고 한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편지를 써서 주더라. 내가 오히려 정말 감사했다.

프로젝트를 마치며 느낀 점이 있다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를 배려하고 아낌없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구나 다시 한 번 느꼈다. 프로젝트 참가 이후 세 아들에게 좀 엄하게 하려고 하면 아내가 ‘하모니프로젝트 가서는 안 그러면서 집에서는 왜 그래?’ 그러다(웃음). 내 아이들에게도 최소한 집에서만은 아무런 평가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그리고 나와 음악을 하는 이들을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는 지휘자가 되고 싶다.



지금은 찾아가는 문화복지 시대

땡큐, 우리동네 금요마실!

공연장으로 들어오는 이들의 웃차림이 가볍다. 분명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고 했는데 하이힐에 정장 차림은 많지 않다. 자녀들을 데리고 온 젊은 어머니 친구들끼리 함께 온 여고생, 은발의 노부부 얼굴에 엄숙함 대신 편안한 미소가 감돈다. 가벼운 마음, 그러나 묵직한 감동. <우리동네 금요마실>은 그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글 편집부 | 사진 이선희

내 집 앞 5분 거리에서 누리는 '작은 사치'

<우리동네 금요마실>은 부평구문화재단이 주민들에게 내미는 특별한 선물이다. 이름처럼 내 집 앞 5분 거리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에 '마실가는' 기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나눔이기 때문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올해 4월 10일부터 이를 '거점별 문화공간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다.

이 사업에는 '모두 함께 나누는 예술'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수준 높은 공연 기획으로,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재정 도움으로, 지역 예술단체는 감동적인 공연으로, 주민들은 관심과 참여로 예술을 나누고 가꾸며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동네 금요마실>이기 때문이다.

휴일의 시작은 감동적인 문화공연으로

<우리동네 금요마실>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에 한 번 씩 열린다. 둘째 주 금요일엔 부평1동 주민센터 4층에 있는 150석 규모의 '문화마당'에서, 넷째 주 금요일엔 부평구청소년수련관 4층에 위치한 4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열린다. <우리동네 금요마실>은 부평구의 거점 지역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공간을 징검다리 삼아 부평아트센터 등 본격적인 공연장-전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의 풍토를 다지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숨어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라는 공연 시간도 '마실'이라는 단어와 꼭 들어맞는다. 일주일 동안의 바쁜 일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막 식사를 마친 시간. 가족들과 기분 좋은 짧은 산책 끝에 다다를 수 있는 곳이 공연장이라면 꽤 괜찮은 휴일의 시작이 아닐까.



① <우리동네 금요마실>의 문을 연 '리디안우울헬리오케스트라'의 공연.

② 15년 전통의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의 공연도 <우리동네 금요마실>에서 만날 수 있었다.

③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합창대회 그랑프리 수상에 빛나는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④ '부평행버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진 날, 부평구청소년수련관 4층에는 가족단위 관람객이 찾아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며 주말을 맞았다.

클래식에서 록 밴드 공연까지 다양한 라인업

무대에는 부평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단체들이 오른다. 지역 예술가들을 육성·지원한다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취지에 꼭 맞는 라인업이다. 2011년 창단하여 우쿨렐레와 다양한 악기를 접목한 연주로 사랑받는 '리디안우쿨렐레오케스트라'가 4월 10일 첫 공연의 주인공이었다. 4월 24일엔 국내는 물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합창대회 그랑프리를 차지한 바 있는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5월 8일에는 15년의 전통과 각종 합창경연대회 수상에 빛나는 부평구립여성합창단, 5월 22일엔 지역의 젊은 음악가들이 뭉쳐 활발히 활동하는 부평챔버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외에도 미추홀오페라단, 정유천밴드, 지역 문화예술동아리 등이 공연을 기다리고 있다.

공연이 펼쳐질 장소와 공연단체, 공연 횟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내 집 앞 5분 거리'에서 쉽고 편안하게, 감동적인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도록 금요마실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보다**



① 부평구청소년소녀합창단 무대에 선 부평챔버오케스트라

②, ③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열정적인 공연 모습

〈우리동네 금요마실〉 공연장을 찾은 김수연, 조선일, 조효경, 조효원 가족



〈우리동네 금요마실〉 현장에 가다

다음 마실이 기다려지는
가슴 따뜻한 공연

5월 22일, 부평구청소년소녀합창단 4층에는 실내악 선율이 가득 찼다. 엄마와 함께 공연장을 찾아 앞줄을 차지한 어린이는 몸을 앞으로 쭉 내밀고 음악에 빠져있었다. 4악장의 연주가 모두 끝나자 가장 크게 박수를 친 것은 앞 열 중간 즈음에 나란히 앉은 뽀글머리 할머니 세 분이였다. 세 할머니는 부평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이어 나온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 성악가들의 노래에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베이스 이정주, 테너 김성현, 소프라노 황석희 학생이 풍부한 성량과 음성으로 신동수의 '산아', 임금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도니체티의 오페라 '연대의 딸' 중 한 곡 등을 연달아 불렀다.

마지막으로 세 명의 학생 성악가들이 멋진 화음으로 유명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삽입곡 '지금 이 순간'을 부르자 순서지에 적힌 공연은 모두 끝났다. 살짝 아쉬움이 남는

순간 '앙코르곡이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회자의 센스있는 귀뜸에 힘입어 관객들은 한 마음으로 '앙코르'를 연주했다. 부평챔버오케스트라의 재등장과 앙코르곡 연주로 관객들은 한 시간 남짓 되는 공연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공연장을 찾은 김수연(엄마), 조선일(아빠), 조효경·조효원(딸) 가족(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은 "이런 공연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더 자주 왔을 것 같다"고 했다. 김수연 씨는 평소 자주 찾는 부평구청소년소녀합창단의 안내장을 보고 큰 기대 없이 찾아왔는데, 생각보다 훌륭한 공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큰딸 조효경 양은 감상을 묻는 말에 "아름다운 음악을 좋아하는데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재미있었다"며 활짝 웃었다. 엄마 김수연 씨는 "입소문을 많이 내서 다음번엔 더 많은 지인과 와야겠다"며 가족들과 공연장을 나섰다.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창립총회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가 지난 1월 15일(목) 삼산월드체육관 컨벤션센터에서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창립총회 및 후원의 밤'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지역의 기업과 예술가, 문화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후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통해 문화도시 부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창립되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최도현 회장(대원인물 대표)을 비롯하여 신희식 고문(신신푸드 대표), 서달문 고문(인천형기/인천산업계기 대표), 노태손 수석부회장(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 성낙경 부회장(한밭기술 대표), 서태호 부회장(난다 고문), 윤대기 감사(법무법인 로열 변호사) 등 총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후원의 밤 행사에는 홍미영 부평구청장, 박창재 부평구의회 부의장과 홍영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후원회 출범을 축하했다.

조성된 후원금은 기업, 예술가, 문화기관 간 트라이앵글 파트너십을 통해 부평구 내 유휴 문화공간을 활용한 〈우리동네 금요마실〉 프로젝트와 지역 예술인들과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부평예술제〉프로젝트 등, 부평구 문화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공모 2년 연속 선정

부평구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주관하는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개발 지원사업'과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 - 문예회관 공연 기획 프로그램 사업'(이하

문예회관 공연 기획 프로그램 사업)에 창작음악극〈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어린이 국악 창작음악극〈할락궁이의 모험〉이 각각 선정돼 총 6천 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개발 지원사업은 문예회관별 순수 예술 제작 프로그램 지원 강화에 따라 지역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문예회관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문예회관 공연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의 전문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하여 문예회관이 자체적으로 제작·운영하는 기획 프로그램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창작음악극〈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의 제작비용 일부(4천 만 원)와 어린이 국악 창작음악극〈할락궁이의 모험〉의 제작비용 일부(2천 500만 원)를 지원받았다. 특히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전국 각 문예회관 39개 작품 중에서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작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며 두 공연 모두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부평구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정

부평구(구청장 홍미영)와 부평구문화재단은 지난 5월 인천광역시와 연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다.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문체부에서 진행해온 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자치단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부평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37억 5천만 원(국비 40%, 지방비 60%)을 투입하여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부평구문화재단이 주관하여, 지역문화 전문가, 시민 리더 및 시민협의체, 행정담당부서 등으로 구성된 문화도시추진협의체 구축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부평구는 이에 따라 음악을 중심으로 한 창의인재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키우고,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 및 문화거점 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의 일상성을 구현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부평과 부평의
음악적 자산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대중음악의
뿌리, 찬란한 음악도시 부평을 그린다.

미리보다 :

2015년 하반기 부평구문화재단이 준비한 공연과 전시 등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WHAT'S NEXT

01 — 여신님이 보고 계셔

02 — 부평옥션 화이트 세일

03 — 2015 야외 축제 부평밴드페스티벌

CALENDAR

대학로 창작뮤지컬의 흥행신화

여신님이 보고 계셔

공연 정보

일시

11월 13일(금) 오후 8시

11월 14일(토) 오후 3시

장소 해누리극장

입장료 전석 3만 5천 원

관람연령 12세 이상

관람포인트

'여신님이 보고 계셔', '그대가 보시기에', '꽃봉오리' 등 귀에 감기는 넘버. 탄탄하고 잘 짜여진 이야기로 밀려오는 감동.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로
풀어낸 전쟁의 비극

라이센스 뮤지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요즘, 국내 순수 창작 뮤지컬의 자존심을 지키고 흥행 신화를 새로 쓴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가 11월 부평아트센터에 온다.

한국전쟁 시기 인민군 포로를 수송하던 배가 난파하면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인민군 넷과 국군 두 명. 고장 난 배를 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인민군 병사는 참혹한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신을 놓아버린 상태다. 그의 상태를 안정시켜 배를 고치기 위해 지어낸 공동 규칙이 바로 '여신님이 보고 계셔' 대작전.

처음엔 살아 돌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며냈던 존재인 '여신'에 자신들의 그리운 첫사랑, 누이, 어머니를 대입하며 병사들은 잃어버렸던 꿈과 희망을 찾아간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점차 인간적인 신뢰와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는 병사들의 모습은 따뜻한 감동을 자아낸다.



탄탄한 스토리와 귀에 감기는 음악

전쟁을 배경으로 했지만 무겁기보다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2011년 CJ 크리에이티브 마인즈(Creative Minds)에 선정되어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2013년 1월 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루에서 초연될 당시 객석점유율 95%를 기록하여 창작뮤지컬 최고의 기대작으로 평가받음으로써 그 기대에 부응했다. 지난해에는 소극장 창작뮤지컬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중극장 규모의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공연되었으며 일본으로 진출하여 뮤지컬한류의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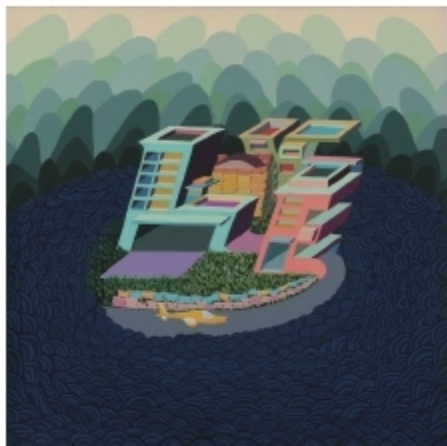
4연째인 만큼 뮤지컬 무대와 음악, 연기도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무르익었다. 무대에 표현된 난파된 수송선 잔해가 내뿜는 차가운 빛과 대비된 무인도의 아름다운 자연은 참혹한 전쟁 속에 피어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넘버가 흘러나올 때마다 다양한 무대장치를 선보여 시각적으로도 지루할 틈 없는 재미를 준다.

초연 때부터 함께해 온 배우들과 다양한 뮤지컬을 통해 실력을 검증받은 새 배우들이 힘을 합쳐 노련한 동시에 신선한 연기를 선보인다는 점도 이번 공연의 특징. 공연을 거듭하면서 더욱 세련되어진 넘버들도 귀와 마음에 온온한 반향을 일으킨다. **보다**



이웃과 나누는 예술의 감동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재미킴, <something LOVE01>, 36x36cm, acrylic on canvas, 2013



한아름, <정남강 옥마와 풍선>, 36.5x25.5cm, colored pencil on paper, 2012



오은교, <Touch Light>, ceramic



송영욱, <기억의 데크>, Digital Print

나눔, 응원, 감동의 자리가 될 경매 현장

부평아트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예술품 자산 경매 행사인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을 연다. 경매 수수료 없이 전액 기부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경매는 중견 작가들의 굵직한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출품될 '1부: 메이저 세일', 떠오르는 신인 작가들을 소개하게 될 '2부: 컷팅 엿지', 소품 위주의 작품들을 시작가 15만 원부터 만날 수 있는 '3부: 스페셜 세일'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화와 서양화 등 평면회화는 물론, 판화, 사진, 조각, 설치물, 입체작품 등 순수미술 작품이 1, 2부에 걸쳐 약 50여 점 출품 예정이며, 스페셜 옥션 파트에는 약 15점의 소품이 출품된다.

첫 회였던 지난해 경매에선 100여 명 가량이 참여하여 선택한 작품을 놓고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경매의 수익금은 낙찰자의 이름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되었다.

관계자는 부평옥션의 목적을 이렇게 소개한다. “행사의 가장 큰 목적은 첫째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악한 미술품 유통시장의 판로를 개척하여 지역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켜보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시 공간이 부족한 인천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로 삼아 삶의 질을 제고해보자는 것이예요.”

지역 주민과 지역 예술가, 문화재단이 삼각형의 꼭짓점을 이루며 예술을 가꾸고 누리고 나누자는 것.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에서 2015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있고 아름다운 쇼핑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보다

행사 정보

경매 일시 11월 26일(목), 오후 5시

장소 갤러리 꽃누리

프리뷰 전시

11월 11일(수) ~ 11월 25일(수)

경매 후 전시

11월 27일(금) ~ 11월 29일(일)

참가포인트

경매 당일 뿐 아니라 프리뷰 전시장에서 사전 서면 응찰도 가능. 경매 방식에 없다고 속쓰러워하지 말고 도전해 볼 것.



경매 일시 2015. 11. 26(목)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프리뷰 전시 2015. 11. 11(수) ~ 11. 25(수)

경매 후 전시 2015. 11. 27(금) ~ 11. 29(일)

주최 부평구 문화재단

주관 부평아트센터

음악도시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시간

2015 야외 축제, 부평밴드페스티벌



밴드 음악으로 부평의 과거와 현재를 잇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난 간 자리에 아주 특별한 가을이 찾아온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올해 새롭게 진행하는 <부평 밴드페스티벌>이 부평의 가을밤을 풍요로운 감동으로 채울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은 에스컴(ASCOM)이 자리하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 미군부대 안팎에 십여 곳의 클럽을 중심으로 서구의 팝과 재즈 등 당시로선 선구적인 음악이 성행했다. 신중현, 현미, 윤항기 등 걸출한 뮤지션들이 부평을 기반으로 활동했으며, 이러한 부평의 음악은 향후 한국의 대중음악이 성장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부평 밴드페스티벌>은 음악이 흐르는 타임머신을 타고 부평의 역사를 되짚는 축제다.

첫날인 10월 16일 금요일에는 '오리지널'을 주제로 화려한 무대가 펼쳐진다. 14인조 올스타밴드의 연주가 가을저녁의 근사한 야외무대를 선사하며, 1960년대 부평 클럽이 낳은 스타인 현미는 물론, 실력파 가수 박기영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이에 앞서 혼성 브라스밴드 '블루스 챔버'가 환상의 가을을 연다. '피아노 협주곡 1번', '라쿠카라차', '아메리칸 페트롤', '바위고개', '보고 싶은

얼굴', '노란셔츠 입은 사나이', '그린 그린 그래스 오브 홈' 등 세대를 뛰어넘어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로 진행된다.

다음 날인 17일 토요일 공연의 주제는 '탐밴드'다. 전통 타악과 풍물 단체와 차세대 인천대표를 꿈꾸는 록그룹 디아렐테가 협연하는 '퓨전밴드'가 새로운 형태의 공연으로 눈과 귀를 호강시킨다. 색소폰의 남진우, 건반주자 김나하비, 블루스 가수 강허달림을 비롯해 내로라하는 뮤지션들로 구성된 '프로젝트밴드'는 <부평 밴드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다. '타임이즈 타이트', '싸이키문(폐지나칭칭나네)', '유로파', '그린 어니언즈'와 같은 명곡들로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부평 밴드페스티벌>에 앞서 공모를 통해 선발된 5팀의 밴드가 부평아트센터 놀수원에서 벌이는 버스킹 공연도 기대 이상의 재거리다. 부평과 인천에 기반을 둔 실력파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시민들과 함께 즐기며 음악도시 부평을 확인하는 <부평 밴드페스티벌>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보다**



행사 정보

일시 10월 16일(금) 저녁 7시

10월 17일(토) 저녁 6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구름마당, 놀수원
(우천시 해누리극장으로 변경)

참가 포인트

무료로 펼쳐지는 이 흥겨운 음악잔치에는 딱히 필요한 것도, 준비할 것도 없다. 열린 마음과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귀, 그리고 뜨거운 박수를 장전한 손바닥만 있으면 된다.

2015

9

September

- 기획공연·축제
- 기획전시
- 예술교육·예술지원
- 부평·부개문화사랑방 공연
- 부평·부개문화사랑방 교육



2015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1996년 일본에서 발매된 유키 구라모토의 첫 피아노 솔로 앨범 <Lake Misty Blue>에 수록된 '레이크 루이스'는 30년이 흐른 현재까지 여전히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15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는 레이크 루이즈 발매 3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으로 위안과 안타까움, 사랑스러움, 희망 등을 음악으로 표현해낸다. 유키 구라모토의 애잔한 선율과 절제된 분위기, 서정적 연주는 듣는 이의 가슴을 따스하게 어루만질 것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내 대형 클래식 공연의 주요 단체로 레퍼토리의 유연성과 젊은 에너지를 자랑하는 디토 오케스트라와 함께한다.

기간 9월 11일(금) 오후 8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 6만 원 / S 5만 원 / 시야장애석 4만 원
대상 만 7세 이상
러닝타임 12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안내 032-500-2000



브런치콘서트
음악과 미술의 만남

〈프로그램〉
엘가 '사랑의 인사', 쇼팽 '죽음환상곡', 구노 '세레나데', 사라사테 '지고이 네르바이젠'

기간 9월 24일(목) 오전 11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1만 5천 원
대상 8세 이상
러닝타임 7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안내 032-500-2000

● 공연 종료 후 커피와 머핀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8~

한국춤 아카데미
한국의 전통문화를 예술적 춤사위로 느껴보고, 단계별 집중 훈련을 통해 우리 춤의 흐름과 움직임을 익힌다.

기간 9월 8일(화)~12월 17일(목)
매주 화, 목 오후 3시 ~ 오후 4시(초급),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중급)
장소 부평아트센터 대연습실
참가비 8만 5천 원
참여대상 성인
교육시간 60분
안내 032-500-2073
접수 온라인 및 방문 접수

9/4~ 9/6

2015 부평예술축제
부평의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쌓아온 성과를 여러 장르의 공연과 전시로 펼쳐 시민들과 나누고,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으로 지역예술의 소통을 확장하는 지역예술축제

기간 9월 4일(금) ~ 6일(일)
개막식 4일 오후 8시 ~ 오후 10시
야외공연 오후 6시 ~ 오후 9시
체험 오후 2시 ~ 오후 6시
전시 4일 ~ 6일까지
장소 부평아트센터 일대
관람료 무료
대상 전 연령
안내 032-500-2000



부평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합창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 여가활동을 공유함으로써, 가족 간 이해의 기회를 갖는다.

기간 8월 22일(토) ~ 11월 28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 5시 30분
장소 부평아트센터 중연습실
참가비 무료
관람연령 초등학교 1학년 ~ 성인
교육시간 3시간
안내 032-500-2073
참가신청 온라인 접수



광대 제담극 <자라>

연애도 결혼도 나중으로 미루고 돌아오는 건 열정페이?
평범한 도시 청년의 한겨울 꿈같은 반전 스토리 연희집단 The광대가 시도하는 1인극으로 배우의 재치로 관객의 흥을 돋우는 한국 제담의 특성을 잘 살린 작품.
꼭두각시놀음의 인형놀이, 전통의 움직임과 연극적인 요소들을 융광마트에서 일하는 도시 청년 영육의 시점으로 잘 녹여낸 이야기.

일시 9월 25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5천 원
대상 8세 이상
러닝타임 60분
안내 032-505-5995
예매오픈 9월 21일(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청년예담>

문화예술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예비 기획자를 대상으로 현업에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역량 개발 프로그램.

기간 9월 7일(월) ~ 11월 23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
참가비 10만 원
대상 문화예술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 및 청년
교육시간 180분
안내 032-500-2073
참가신청 온라인 접수



<공파리 오르프>

엄마와 아이가 함께 공파리 사바라~!
음악으로 나누는 대화, 몸으로 만드는 이야기 독일의 음악가 '칼 오르프(Carl Orff)'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음악놀이.
리듬, 노래와 신체표현 및 악기연주 등을 활용한 흥미로운 체험 중심의 음악교육 프로그램.

기간 9월 17일(목) ~ 12월 3일(목)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참가비 6만 원
대상 4,5세 유아와 엄마, 10쌍
교육시간 60분
안내 032-505-5951
접수 9월 8일(화) 오전 10시부터 전화 신청



통기타 아카데미

통기타 코드 익히기에서 화려한 연주기술까지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집중 코스.

기간 9월 12일(토) ~ 12월 19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3시 30분(초급),
오후 4시 ~ 5시 30분(중급)
장소 부평아트센터 스튜디오 A
참가비 8만 5천 원
참여대상 성인
교육시간 90분
안내 032-500-2073
접수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컬레버레이션으로 즐기는 문화가 있는 수요일 <아름다운 낭독공연 2>

작품의 감동을 눈과 귀로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공연. I - 신포니에타의 클래식 선율에 맞춰 극단 MIR레퍼토리극단 극단 십년후의 낭독공연이 시작된다.

기간 9월 23일(수) 오전 11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무료
대상 8세 이상
러닝타임 70분
안내 032-500-2000

2015

10

October

- 기획공연·축제
- 기획전시
- 예술교육·예술지원
- 부평·부개문화사랑방 공연
- 부평·부개문화사랑방 교육



10/2 ~ 10/18

《생활의 발견》展

도예작품과 목공예 작품 그리고 회화작품의 만남을 통해 우리 생활 공간이 전시 공간이 되어 나타나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전시다.

기간 10월 2일(금) ~ 18일(일)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안내 032-500-2000/2072

10/6



2015 풍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
《어디 어디 숨었나》
아동의 자존감 향상과 예술적 감수성 깨우기를 목표로 연극놀이, 과정드라마 등의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감각과 감정을 인지하고 또래와 공유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된 체험형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기간 10월17일 ~ 12월19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수강료 무료
참가대상 초등학교 1 ~ 2학년, 12명
교육시간 180분
안내 032-505-5951
신청 및 접수 홈페이지



《연극 나와라, 뚝딱!》

4,5세 아이들이 연극과 이야기를 통해 낯설고 새로운 경험 속에서 호기심을 갖고 마음껏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놀이, 관찰, 역할 등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된 연극놀이 프로그램

기간 10월 1일 ~ 12월 3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5시, 5세반)
10월 7일 ~ 11월 4일(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4세반)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수강료 (5세반) 10만 원(10회) / (4세반) 5만 원(5회)
참가대상 (5세반) 5세 유아, 10명
(4세반) 4세 유아와 엄마, 8쌍
교육시간 60분
안내 032-505-5951
신청 및 접수 9월 23일(수) 오전 10시부터

10/6



《팡팡댄스》

가족, 친구, 이웃 등 누구든지 2인 1쌍으로 참여하여 영화 속에서 본 탭댄스, 탱고, 왈츠 등 다양한 춤을 함께 배워보는 댄스 프로그램

기간 10월6,13,27일, 11월 3,17,24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10시)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수강료 6만 원(1쌍)
참가대상 성인 또는 17세 이상 청소년(2인 1쌍), 총 10쌍
교육시간 180분
안내 032-505-5951
신청 및 접수 9월 22일(화) 오전 10시부터
전화 신청

10/16 10/17

《부평 밴드페스티벌》

모두 함께 즐기는 부평구문화재단 야외 음악 축제.

기간 10월 16일(금) 오후 7시
10월 17일(토) 오후 6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안내 032-500-2000

10/7



제 20회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클라운마임이란 광대를 뜻하는 '클라운(Clown)'과 무언극이라는 단어 '마임(Mime)'의 합성어로 관객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극단마임의 열망이 표현된 고유명사다. 세계 속 인천의 문화가치를 알리고 교류의 장이 되어온 클라운마임축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였다. 더욱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아트축제에는 국내 팀뿐만 아니라 아니라 인도,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팀도 참가할 예정이다.

기간 10월 7일(수) 오후 7시 30분
10월 8일(목) 오후 4시 30분, 7시 30분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진행시간 60분
관람료 성인 3만 원/ 청소년 1만 5천 원/ 어린이 및 단체 8천 원
안내 032-500-2000

10/13 10/27



부평문화포럼

부평의 문화적 이슈를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인 2015 부평문화포럼은 '문화도시'를 주제로 총 4차례 진행된다.

기간 10월13일(화), 27일(화), 오후 2시 ~ 5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
진행시간 180분
안내 032-500-2012

10/22 ~

부평 영아티스트 《Perennial Inspiration》

부평구문화재단의 첫번째 공모전. 여기서 발탁된 영아티스트는 수상작 전시인 Perennial Inspiration을 통해 라이징 아티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시다.

기간 10월 22일(목) ~ 11월 8일(일)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안내 032-500-2000/2072

10/23



《우리동네 금요일》 — 정유원 밴드 외

재단 후원회와 함께 부평 관내의 거점별 공간 (부평1동주민센터 문화마당, 부평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을 활용하여 지역 기업, 지역 예술인, 지역 주민의 연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생활예술 활성화와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상설공연이다.

기간 10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구청소년수련관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50분
안내 032-500-2071

10/24

소년소녀합창단 제6회 정기연주회

2010년에 창단하여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제6회 정기연주회.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해 부평구의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해온 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이 펼쳐진다.

기간 10월 24일(토) 오후 7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60분(인터미션 없음)
안내 032-500-2074
예매 선착순 현장 배포

10/24

호박(HoBAC)데이트 <극장, 책을 읽다>

디자이너 이상봉과 눈과 귀를 열어 극장에서 저자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 극장에서 작가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공간들은 풍성한 음악으로 채워질 것이다.

시간 10월 24일(토) 오후 3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10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안내 032-500-2000

10/28

컬레버레이션으로 즐기는 문화가 있는 수요일

《음악 속의 움직임》

현대무용과 발레의 만남, 클래식과 전통 타악과의 만남. 음악과 함께 표현하는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기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8세 이상
진행시간 70분
안내 032-500-2000

10/29

브런치콘서트 <빛으로 그린 그림과 음악>

인상주의 작가의 그림과 음악을 중심으로 물과 빛놀이와 관련된 그림과 음악 이야기. 고희가 사랑했던 아들과 빛이 빛나는 밤에 대하여 음악과 함께 감상하는 융합적인 콘서트이다.

《프로그램》
드뷔시 '달빛', '아라베스크 1번', 비제 <아름르의 여인> 중 '미뉴엣', '파랑들'
* 공연 종료 후 커피와 머핀 제공.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기간 10월 29일(목) 오전 11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진행 시간 70분
안내 032-500-2000

2015

11

November

- 기획공연·축제
- 기획전시
- 예술교육·예술지원
- 부평·부개문화사랑방 공연
- 부평·부개문화사랑방 교육



《여신님이 보고 계셔》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2011 CJ Creative Minds 선정작으로 2012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예그린 앙코르 최우수 선정작으로 뽑혔으며, 2013년 1월 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루에서 초연 당시 객석점유율 95%를 기록하는 등 그해 창작뮤지컬 최고의 기대작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13년 국회대상 올해의 뮤지컬상 수상을 거머쥐고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관객들 사이에서 '무인도왕이', '여신왕이' 등이 끊임없이 회자되며 '여보서 신드롬'을 형성하기도 했던 작품으로 수많은 대극장 라이선스 공연들 사이에서 흥행 신화를 이뤘던 창작뮤지컬로 평가 받고 있다.

기간 11월 13일(금) 오후 8시
11월 14일(토) 오후 3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3만 5천 원
관람연령 12세 이상
러닝타임 11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안내 032-500-2000

11/11

문화예술동아리 발표회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시민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부평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지역민의 만남으로 문화예술 향유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부평구 문화예술 동아리가 모여 발표회를 통해 하나의 결실을 맺는 공연을 선보이고자 한다.

시간 2015년 11월 11일(수), 시간미정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120분
예매 선착순 입장
안내 032-500-2000

11/11 ~ 11/25

2nd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프리뷰 전시

미술품 경매를 통한 아름다운 나눔, 올해 두번째 열리는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의 프리뷰 전시. 전시를 통해 경매에 참여하기 전 응찰자와 관람객들은 경매에 출품된 작품들의 컨디션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간 11월 11일(수) ~ 25일(수)
경매일시 11월 26일(목) 오후 5시부터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안내 032-500-2000/2072

11/13

포럼 연극 <빙 위의 가족>

중요하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갈등! 서로 사랑하고 존중받고 싶은데 이것이 대화로 충족이 되지 않아 속상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과 불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건전한 웃음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가상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과 혹은 친구와 함께 솔루션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시 11월 20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5천 원
참가대상 청소년
러닝타임 120분
안내 032-505-5995
예매오픈 11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11/10 11/24

부평문화포럼

부평의 문화적 이슈를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인 2015 부평문화포럼은 '문화도시'를 주제로 총 4차례 진행된다.

기간 11월 10일(화), 24일(화) 오후 2시 ~ 5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
진행시간 180분
안내 032-500-2012

11/25

2015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스크린 속 공연 이야기 — 호두까기인형, 마술피리>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넘어 영상으로 공연을 즐긴다.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과 웅장한 안무의 환상적인 조화인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스크린으로 만난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이야기로 관객 모두를 환상적인 동화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모차르트, 그 마법의 손길에서 태어난 동화같은 오페라 <마술피리>. 미지의 세계에서 만나는 모차르트의 음악 안에 숨겨놓은 수수께끼를 풀어라

시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오후 2시(호두까기 인형), 오후 7시(마술피리)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주관 부평구, 부평구문화재단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100분
안내 032-500-2000



《서치드림》

공연장상주예술단체 극단 십년후가 펼치는 연극이다. 우리 모두 지나온, 그리고 지금의 청소년들이 지나올 청춘이라는 아름다운 시절. 우리 청소년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가슴을 열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시간 11월 17일~22일(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100분
예매 극단 십년후
안내 032-514-2050

11/18



컬래버레이션으로 즐기는 문화가 있는 수요일 <우리 가락의 신명나는 퍼포먼스 파티>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연. 잔치마당, 더닝, 아작 그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우리 가락의 변신! 그리고 자투리가 퍼포먼스를 자연스럽게 엮어 하나의 줄거리로 어는 퍼포먼스 파티가 펼쳐진다.

시간 11월 18일(수) 오전 11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70분
안내 032-500-2000



연극을 위한 연극, 모리스 뒤로지에의 <배우의 말> "그렇다, 만약 사무라이의 영혼이 그의 칼이고, 화가의 영혼이 그의 붓이라면 배우의 영혼은 자신의 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프랑스 태양극단 배우 모리스 뒤로지에와의 협업공연. 아버지 역은 모리스 뒤로지에가, 딸 역은 권재인이 맡았다.

시간 11월 21일(토) 오후 7시
11월 22일(일) 오후 3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1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90분
안내 032-500-2000

11/26

브런치콘서트 <4인 4색 예술가의 사계>

자연을 사랑한 예술가 네 명의 작품을 사계절을 표현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이다.

<프로그램>
멘델스존 무언가 중 '봄노래', 슈베르트 '봄의 신양', 비발디 <사계> 중 '여름', '겨울'.

* 공연 종료 후 커피와 머핀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11월 26일(목) 오전 11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7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안내 032-500-2000

11/22



태양극단과 카르투스리에 대한 <아들리에> 연극배우, 연극인 그리고 공연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와 궁극점을 해소시켜주고 연극의 본질적인 목표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시간. 더불어 모리스 뒤로지에가 직접 구상, 계획하여 제안한 아들리에에는 30년 넘는 극단 생활의 경험을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시간 11월 22일(일) 오후 7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120분
안내 032-500-2000

11/28

인천신진아트플랫폼

공연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보댄스컴퍼니가 펼치는 지역의 유망 작가(안무가)발굴 및 육성 프로젝트 공연.

시간 11월 28일(토) 오후 5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천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90분
예매 구보댄스컴퍼니
안내 032-513-7902

11/14 11/28

로비음악회

출연진은 공모를 통하여 단체를 모집,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시간 11월 14일(토), 28일(토), 오전 11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로비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60분
안내 032-500-2000

2015

12

December

- 기획공연·축제
- 기획전시
- 예술교육·예술지원
- 부평·부개문화사랑방 공연
- 부평·부개문화사랑방 교육

12/11

《우리동네 금요마실》— 부평구립풍물단

우리동네 금요마실은 재단 후원회와 함께 부평 관내의 거점별 공간(부평1동주민센터 문화마당, 부평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을 활용하여 지역 기업, 지역 예술인, 지역 주민의 연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생활예술 활성화와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상설공연이다.

시간 12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1동주민센터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50분
안내 032-500-2071

12/11

시간 12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1동주민센터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50분
안내 032-500-2071

12/11

시간 12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1동주민센터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50분
안내 032-500-2071

12/11

시간 12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1동주민센터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50분
안내 032-500-2071

12/11

시간 12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1동주민센터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50분
안내 032-500-2071

12/11

시간 12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1동주민센터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50분
안내 032-500-2071

12/11

시간 12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1동주민센터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50분
안내 032-500-2071

12/11

시간 12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1동주민센터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50분
안내 032-500-2071

12/11

시간 12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1동주민센터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50분
안내 032-500-2071

12/11

시간 12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1동주민센터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50분
안내 032-500-2071

12/11

시간 12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1동주민센터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50분
안내 032-500-2071

12/11

시간 12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1동주민센터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50분
안내 032-500-2071

12/11

시간 12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1동주민센터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50분
안내 032-500-2071

12/11

시간 12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1동주민센터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50분
안내 032-500-2071

12/17~ 12/27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음악이라는 치유제를 통해 무너진 꿈을 추스르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아나가는 주인공을 통해 삶의 애환과 사랑 등을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표현한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에스캄 부대와 함께 살아온 부평 사람들의 삶을 시대별 음악과 함께 풀어내면서 부평이 지닌 특수성과 휴머니즘의 보편성을 담은 작품으로, 한국의 대중음악 60년의 뿌리를 찾아 찬란한 음악도시 부평을 그려낸 부평구문화재단의 창작 공연이다.

기간 12월 17일(목) ~ 27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3시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시아장애석 2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12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안내 032-500-2000

12/3~ 12/28



블루지 60's

음악도시로 화려했던 1960년대를 살아낸 부평의 삶과 의미를 그려낸 전시. 1부 사진, 아카이브, 사운드 등 아카이브 전시로, 2부 현대미술작가들의 콜라주, 텍스트, 그래피티 등 얼터너티브 전시로 나누어 나타낸 블루지한 감성의 전시로 관람객들은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다.

기간 12월 3일(목) ~ 28일(월)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안내 032-500-2000/2072

12/5



<The Best 윤복희 & 최백호>

매해 최고의 아티스트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부평구문화재단의 The Best 시리즈는 전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콘서트다. 영화, 드라마, 방송 등에서 재조명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 윤복희와 최백호의 무대로 세대적 공감을 만들어 한 해를 특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공연이 진행된다.

시간 12월 5일(토) 오후 7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6만 원, S석 5만 원,
시아장애석 4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러닝타임 12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안내 032-500-2000

12/12



2015. 10. 24(토) / 2015. 12. 12(토) 오후 3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주최 | 부평구문화재단
주관 | 부평구문화재단
후원 | 부평구문화재단,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12/12 1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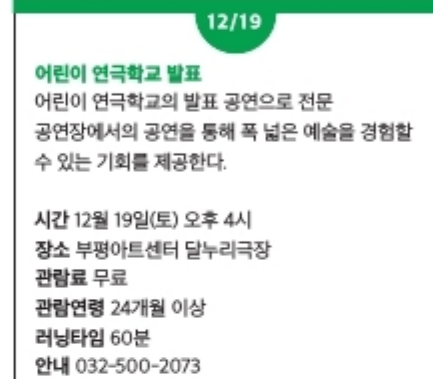


로비음악회

출연진은 공모를 통하여 단체를 모집,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시간 12월 12일(토), 26일(토) 오전 11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로비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러닝타임 60분
예매 부평구문화재단
안내 032-500-2000

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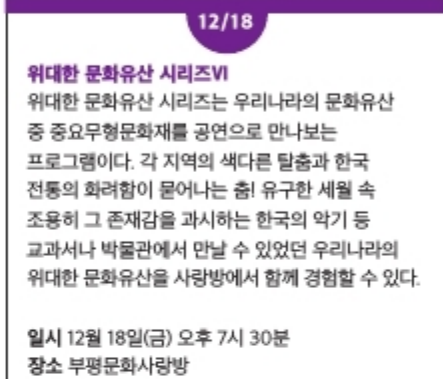


어린이 연극학교 발표

어린이 연극학교의 발표 공연으로 전문 공연장에서의 공연을 통해 폭 넓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간 12월 19일(토) 오후 4시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러닝타임 60분
안내 032-500-2073

12/18



위대한 문화유산 시리즈VI

위대한 문화유산 시리즈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공연으로 만나보는 프로그램이다. 각 지역의 색다른 탈춤과 한국 전통의 화려함이 묻어나는 춤! 유구한 세월 속 조용히 그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국의 악기 등 교과서나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사랑방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일시 12월 18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료 7천 원
참가대상 전연령
러닝타임 60분
안내 032-505-5995
예매오픈 12월 14일(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 안내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부평구민들이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합니다. '모두 함께 나누는 예술'을 지향하며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아름다운 문화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후원회 활동과 지원사업

01 후원회 활동

- 후원회원의 날, 송년의 밤, 총회 등 회원 대상 특별행사
- 바자회, 자선음악회 등 수익사업을 통한 후원금 모금
- 문화를 통한 후원회원의 지역사회 지원사업 개발 및 운영
- 후원회 홍보 및 후원회원 증대를 위한 대외활동
- 기타 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및 활동

02 후원회 지원사업

- 부평아트센터 공연, 전시 문화사업 지원
- 부평구민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한 기금 지원
- 부평구문화재단 미래전략 및 발전 계획
- 부평구문화재단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대외 홍보·협력

후원회 신청방법

01 후원회원 가입절차



02 후원회원 가입방법

- 방문 신청 — 부평구문화재단(마케팅팀)
- 우편 신청 — 인천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마케팅팀)

03 후원회 신청문의

032 - 500 - 2031

후원회 명단

서달문	꽃누리	인천항기 대표
최도현	꽃누리	대원인물(주) 대표이사
노태손	꽃누리	윙크빅문고 대표
성낙경	꽃누리	(주)한발기술 대표이사
서태호	꽃누리	(주)난다 고문
김영무	꽃누리	(주)하온아텍 대표이사
이희재	꽃누리	(주)우성아이비 대표이사
정규형	꽃누리	의료법인 한길안과병원 이사장
이경환	꽃누리	(주)비에이치 대표이사
홍종국	별누리	삼산월드컨벤션센터 대표
박홍식	별누리	부평역사(주) 대표이사
함국종	별누리	부원산업(주) 대표
최주송	별누리	(주)대경아이스 대표
이광복	별누리	동서식품(주) 대표이사
배정태	별누리	더페이스샵 대표
김용택	별누리	온세게교회 GVC 목사
박인덕	구름	상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석범	구름	인그리다언코리아 유한회사 이사
조각형	구름	(주)송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효배	구름	북구환경(주) 대표이사
전봉운	구름	부평환경(주) 대표이사
한재현	구름	동일환경(주) 대표이사
안용현	구름	한국그린환경(주) 대표이사
민병현	구름	(주)평화환경 대표이사
권영조	구름	(주)영메디칼바이오 대표이사
정혜자	구름	(주)삼원환경 대표이사
이승희	외	(주)두진금형 대표이사
맹익재	외	클라이젠(주) 대표이사
허난영	외	(재)세종문화회관 팀장
이혜민	외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신희식	가람	아침을 여는 사람들 대표
윤대기	가람	법무법인 로웰 변호사
최창석	가람	온성산업(주) 대표
권복환	가람	1급부평자동차공업사 대표
안중영	가람	정수미크론 대표
신종백	가람	심정1동 주민자치위원장
심수연	가람	부개3동 주민자치위원장
조정애	가람	개인 회원
박영옥	가람	삼우환경 대표
오종석	가람	한국통운(주) 대표이사
한유순	가람	광원아트홀 원장
정지연	가람	광원건설(주) 대표
강경애	가람	리디안우쿨렐레오케스트라 단장
이계찬	가람	지인조경(주) 대표이사
김유완	가람	관세법인 샤인 관세사
황영희	가람	가현텍스 세무사

후원회원 등급 및 예우

기본예우	홈페이지 후원자 · 기업명 표기 홈페이지 후원회 페이지 운영(소식 업데이트) 대극장 로비 벽면 회원 명판 부착 후원회 카드 발행 레스토랑(설레임) 이용권(후원회 카드 제시 : 식사권 혹은 할인 적용)
------	---

기업 · 개인	해누리 5천만 원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2회)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40매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후원자 · 기업명 표기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기획공연 시 연간 2회) 세미나실, 커뮤니티홀 무상 대관(연간 4회) 기획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예매 적용(50%)	평생회원
	달누리 2천만 원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1회)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30매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후원자 · 기업명 표기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기획공연 시 연간 1회) 세미나실, 커뮤니티홀 무상 대관(연간 3회) 기획공연 오픈 전안내, 할인 및 우선예매 적용(40%)	
	꽃누리 1천만 원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20매 공연 및 축제프로그램 후원자 · 기업명 표기 세미나실, 커뮤니티홀 무상 대관(연간 2회) 기획공연 오픈 전안내, 할인 및 우선예매 적용(30%)	
	별누리 500만 원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10매 기획공연 오픈전안내, 할인 및 우선예매 적용(20%)	
	구름 300만 원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10매 기획공연 오픈 전안내, 할인 및 우선예매 적용(20%)	5년
개인	외 100만 원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6매 기획공연 오픈전안내, 할인 및 우선예매 적용(20%)	5년
	가람 50만 원	기획공연 입장권 연간 4매 기획공연 오픈 전안내, 할인 및 우선예매 적용(20%)	3년

※ 연회비 : 기업회원 10만 원, 개인회원 5만 원(가입연도에는 연회비 면제)



2015 하반기 기원 공연 시즌 표지집

해당 공연

공연명	일정	티켓가격	비고
2015 유기 구라모트 콘서트 <Lake Louise>	9.11(금) 오후 8시	R석 60,000원 S석 50,000원	시아잠야석 40,000원
[브런치 콘서트] 사랑과 꿈 그리고 로망스	9.24(목) 오전 11시	전석 15,000원	
[브런치 콘서트] 빛으로 그린 그림과 음악	10.29(목) 오전 11시	전석 15,000원	
여신님이 보고 계셔	11.13(금) 오후 8시 11.14(토) 오후 3시	전석 35,000원	
[브런치 콘서트] 4인 4색, 예술가의 사계(四季)	11.26(목) 오전 11시	전석 15,000원	
<The Best 문복희&최백호>	12.5(토) 오후 7시	R석 60,000원 S석 50,000원	시아잠야석 40,000원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12.17(목), 24(목)-27(일)	R석 40,000원 S석 30,000원	시아잠야석 20,000원

선택 패키지

타키지	공연명	할인율
다다 (多多)타키지	전편 구배	총 금액의 50% 할인
정점 (頂點)타키지	《여신님이 보고 계셔》,《The Best 문복회&화백호》,《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총 금액의 30% 할인
추점 (秋撰)타키지	《유키 구라모토》,《여신님이 보고 계셔》,《브런치 3편》	총 금액의 30% 할인
동동 (冬動)타키지	《유키 구라모토》,《여신님이 보고 계셔》,《The Best 문복회&화백호》	총 금액의 30% 할인
음색 (音色)타키지	《유키 구라모토》,《브런치 3편》	총 금액의 25% 할인
오시 (午時)타키지	브런치 콘서트 타키지	총 금액의 20% 할인

이용방법

- 엔티켓 enticket 전화예매 1588-2341(온라인 예매 불가) 예매수수료 예매건당 1,000원 고액부담
- 예매취소 마감시간 : 구입하신 패키지의 해당 첫 공연 관람일 전일
- 평일 오후 5시, 토·일 공연은 금요일 오후 5시 (공휴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날 평일 오후 5시/토요일에 공휴일인 경우 금요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적용)
- 취소마감시간 이후에는 패키지에 엔티켓의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자세한 환불규정은 엔티켓 홈페이지 참조
- 공연 일정 변경 : 해당 공연 3일전 오후 5시 (3일전에 토·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 오후 5시)
- 공연 일정 변경 시, 해당 공연의 좌석이 매진될 경우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시아징예석은 패키지로 판매되지 않습니다.